

주최 및 후원 수원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프로젝트 머리에 꽃



2016 ~ 2019

144
벌터에고래가산다

110
게릴라가드닝



목차

05	프롤로그	
12	별터문화마을	148 마을과 사람들
14	문화마을 사업소개	150 주민협의모임
20	별터마을	152 별터온
		154 마을동아리
26	공동체 프로그램	164 서호초등학교
28	마을학교	166 마을학교 선생님
52	마실초대	172 마을탐방
80	마을축제	176 문화마실 공동운영 모임
		179 비하인드 별터
98	커뮤니티 디자인	
100	로고 디자인	180 동네야 놀자전 참가
102	생활 디자인	
104	별터옛길 거리정원	182 언론보도
118	마을회관 리모델링	
124	마을기록과 발간	189 에필로그
126	별터마을 100년	
130	마을잡지	
134	손글씨 달력	
136	인생이 다 시지, 뭐	
142	별터스럽다	
144	별터에 고래가 산다	



프롤로그

벌터문화마을 디렉터
한문희

지나온 시간의 기록과 앞으로의 기대

2016년 4월, 햇살 좋은 봄날의 어느 즈음이었을 것이다. 벌터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 받고 지인과 함께 마을을 걸어보았다. 나에게 이곳은 그리 낯선 곳은 아니다. 10대 후반 인근 성당을 다녔기에 몇 번 와볼 기회가 있었다. 내 기억에 그때 이곳은 서호라 불렸고 작고 나지막한 마을이었다. 수원역에서 바라보면, 철길 옆으로 시멘트와 연탄, 건축자재 공장들이 즐비한 곳이기도 했다. 20여년이 흘러 그때의 기억을 갖고 다시 찾은 마을은 집들이 더 빼곡해 진 것 말고는 거의 변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마을 바깥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수원역 뒤편에 있던 공장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아파트와 쇼핑몰 등이 들어왔다. 수원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이 자리 잡은 것이다.

오래된 기억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낯선 이방인의 호기심으로 골목과 골목을 집과 집 사이를 기웃거렸다. 그러다 동네 어르신을 만나면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저 웃으며 “예~” 하고 받아 주신다. 도시가 아닌 마을에서, 차들이 다니는 대로변이 아닌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교감이다.

골목을 걷다 다리가 아파질 무렵, 나지막하고 오래된 빌라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몇 분의 마을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분들과 눈이 마주치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굴까’라는 의구심의 눈빛으로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한 분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장소를 옮겨 한참을 지속했다. 변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마을의 이야기와 당신의 세탁인생 이야기, 거기에 자식들 이야기까지.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재담실력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한편 지치게 했지만 매우 인상적인 만남이었다. 그것이 내가 20여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마을에 대한 첫 기억들이다.

2016년 9월 3일, 벌터마을 커뮤니티 하우스 문화마실이라는 공간의 문을 열었다. 아침부터 떡을 돌리고 오후에 예정된 오픈식에 주민들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축하공연을 함께 즐겼다. 배우들의 상황극으로 사업과 공간을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이벤트도 진행했다. 벌터문화마을사업은 ‘문화마실’이란 공간의 문을 열면서 2016년 가을 그렇게 시작되었다. 문화마을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의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커뮤니티 지향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해 가는 것이다. 이 중 우리가 집중해 온 것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성이다. 마을은 개인의 삶의 공간이면서 공동체의 삶이 연결되는 곳이다. 그러니 마을은 관계 지향적이고 개인의 삶이 존중받는 곳이어야 한다.

문화마실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마을학교를 진행해왔다. 직조수업, 베이커리 워크숍, 전통주 빚기, 손바느질, 코바느질과 같이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잃어버린 손의 감각과 기술을 회복하기 위한 수업들이나 그림책 수업과 음악놀이, 우쿨렐레, 인문학 공부와 경로당 어르신들의 인생쓰기 수업, 풍물교실과 같이 예술을 매개로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수업들을 진행해왔다. 아이들과 함께 꼬마뽕밭을 일구고 서호초등학교와 놀이, 예술 교육을 함께 하기도 했다. 코바느질 수업은 문화마실 최초의 동아리가 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인생쓰기 수업에서 모아진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인생이 다 시지 뭐’라는 마을시집으로 출간 되었다. 또 어르신들은 짧게나마 익힌 풍물 실력으로 마을행사에 참여하신다. 한두 달에 한 번 비좁은 문화마실 공간의 집기를 치워내고 마을주민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고 좋은 음악을 함께 듣기 위해 시작한 ‘마실초대’는 때론 인문학 콘서트로, 마을 영화관으로 그리고 야외 음악회로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늘려왔다. 분기별로 발행하는 ‘마을잡지’는 마을의 역사, 주택, 소리, 계절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특집과 주민들의 일상을 인터뷰하고 취재하며 마을의 기록지이며 소통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정월대보름에는 액운을 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길놀이로 문을 여는 ‘윷 · 꽃놀이’가 펼쳐진다. 윷 · 꽃놀이는 윷놀이와 경로당 어머님들의 취미생활이신 화투를 대회 형식으로 만든正月대보름 축제이다. 그 외에도 마을에서는 1년에 두 번 축제가 열린다. 햇살 좋은 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장을 펼치는 ‘벌터마을 벼룩시장’이, 청명한 가을날엔 공연과 놀이, 체험, 먹거리가 풍성한 ‘벌터마을 가지가지축제’가 열린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무엇인가 있다는 연대감을 경험해 왔으리라 생각한다.

벌터문화마을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이 계획된 3년간의 사업이었다. 이후 경기도와 수원시의 추가 지원으로 1년을 연장해 2019년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2019년은 벌터문화마을사업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벌터마을에는 오래된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으로 사용되어 오다 2016년 새로운 경로당이 지어지면서 비어있었다. 문화마을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들의 관계성을 풀어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차에 2018년 경기도시민참여형마을정원사업이 계기가 되어 비어있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이곳을 새로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새로운 공간에는 수업을 하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공유주방,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방도 만들었다. 활동 공간의 여유가 생기니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 졌고 몇 개의 동아리가 더 생겨났다. 주민들과 아이들은 마을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문화마실에 남아 놀거나 담소를 나누고 밥을 같이 해 먹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문화마실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일상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다.

1980년대 주민 한분이 땅을 기부하여 주민들의 손으로 지어진 벌터마을회관은 이제 문화마실이란 이름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마을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누군가가 기획하고 주도하던 일들은 이제 끝났지만 그동안 해 왔던 활동의 관계망이 작은 씨앗이 되어 ‘벌터문화마실’이라는 공동 운영자 모임이 만들어졌고, 현재 9개의 동아리 및 정기, 비정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느슨하지만 때론 밀도 있게 일을 추진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한 시간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며 지지하고 응원한다.

4년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자료집으로 묶는 것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평가와 아카이브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문화마실에서의 활동이 지속되는 데에 작은 지표라도 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동안 벌터문화마을 사업 진행에 관심을 표하고 함께 참여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 글은 마을잡지 「벌터」 7호에 실었던
‘벌터의 지나온 시간위에 희망을 심자’의 원고를 수정한 것입니다.







별터문화마을

별터문화마을은 서둔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2016년부터 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고 서로의 연대를 지지하며, 관계 지향적 디자인을 실현하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인문적 가치들을 기록하고 보존해 왔다.

- 문화마을사업소개
- 기본개념구상도
- 연도별주요추진내용
- 별터마을소개
- 마을연표

벌터문화마을 사업소개

도시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한 집단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공동체 의식’은 이제 인위적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그 무엇이 되어버렸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뀌어 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같은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며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 삶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다.

함께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세상을 이해해 간다. 음식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일부를 공유하기도 한다.

벌터문화마을사업은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고 서로의 연대를 지지한다. 마을에 관계 지향적 디자인을 실현하고, 역사와 문화, 인문적 가치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마을학교, 축제, 마실초대 등의 공동체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으로 공유지대, 벌터옛길 거리정원을 조성해 왔고, 마을잡지를 통해 마을의 일상을 기록해 왔다.

공동체 프로그램

- 마을학교

우쿨렐레, 음악놀이, 그림책읽기, 손바느질, 꼬마뽕밭, 코바느질, 재봉틀, 독서, 기타연주 등 문화마실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동아리활동 및 벌터경로당, 서호초등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마실초대

문화마실에 주민들을 초대해 여는 음악회와 인문학 콘서트, 현대의 식탁

- 마을축제

봄의 ‘벌터마을 벼룩시장’과 가을의 ‘벌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그리고 웃과 화투의 한판승을 가리는 정월대보름 ‘웃 · 꽃놀이’

커뮤니티 디자인

예술가들의 공공예술작업과 커뮤니티 가드닝이 결합한 ‘벌터옛길 거리정원’을 비롯해 마을 곳곳에 관계 지향적 디자인의 실현

마을연구 및 기록

마을의 역사와 지리적 변천에 대한 연구기록, 마을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마을잡지

커뮤니티 공간 운영

벌터마을 커뮤니티 하우스 ‘문화마실’의 운영

기간

1차: 2016년 - 2018년 / 2차: 2019년

주최 및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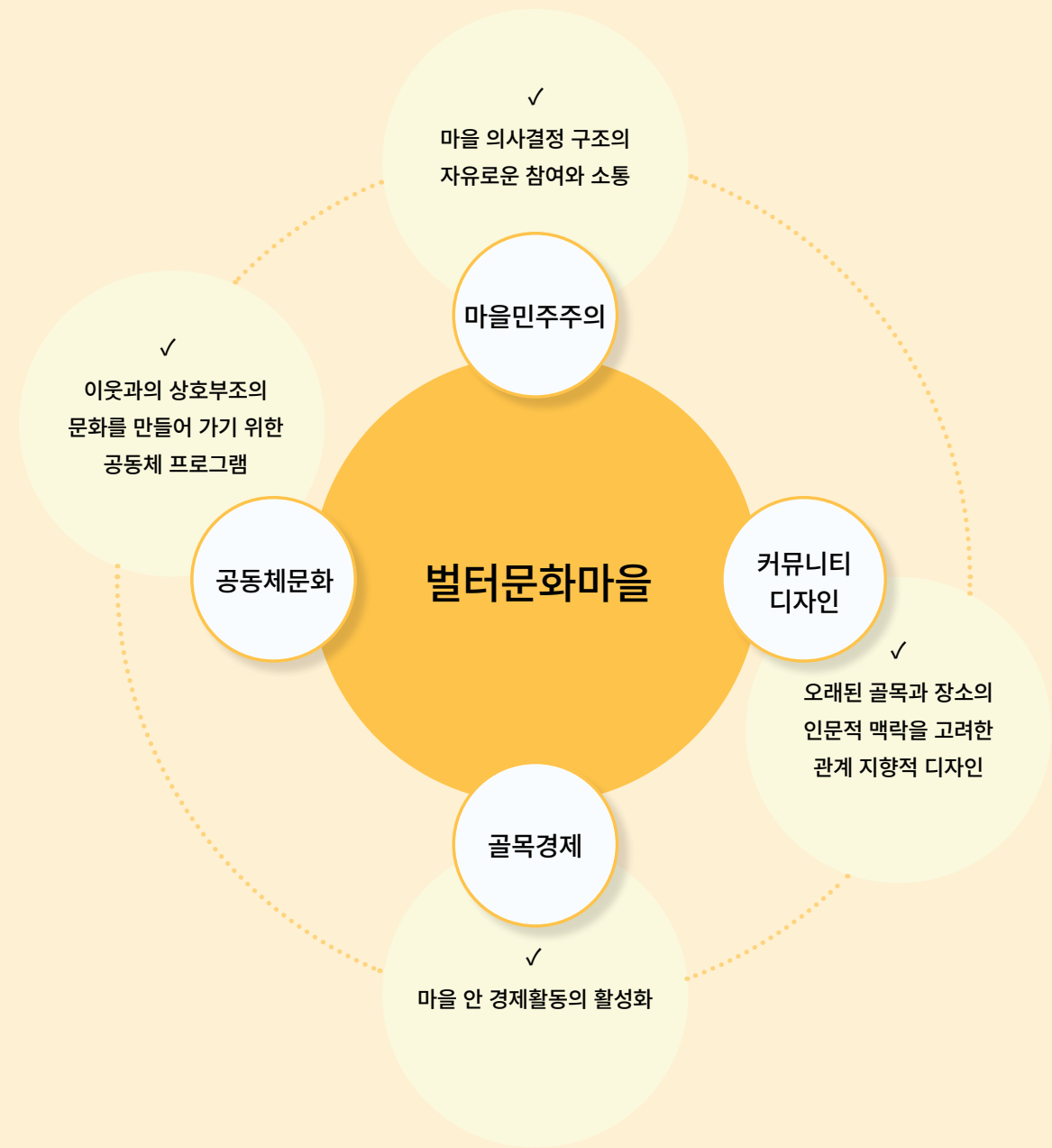
수원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 2018년)

주관

프로젝트 머리에 꽃

문화마을사업에 대한 기본개념구상도

벌터문화마을은 마을민주주의와 골목경제를 축으로 공동체문화와 커뮤니티 디자인을 실현해 나간다.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이웃과의 상호부조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실천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을 위해 오래된 경관을 개선하는 작업에 관계 지향성을 적용한다.



연도별 주요 추진 내용

- 2016년(도입)

문화마실 오픈, 마을환경에 대한 기초연구 진행, 주민추진 협의체 구성, 마을학교 시작

- 2017년(추진)

마을학교, 마실초대, 마을축제 등 공동체프로그램 추진

- 2018년(추진)

공동체프로그램과 더불어 별터옛길거리정원 등 커뮤니티 디자인 진행, 유희공간 별터마을회관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

- 2019년(자발성)

공동체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디자인의 지속 추진, 동아리 활동 지원, 주민협의모임을 통해 주민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감

○ 2016년

구분	프로그램	일정	내용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마실 여는날	9월 3일	문화마실 공간 오픈
	마을학교	9월~12월	직조, 연극수업, 인문학수업, 베이킹 워크숍
	마실초대	10월6일 11월24일 12월20일	이웃주민을 위한 작은초대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송년파티
커뮤니티 디자인	로고디자인	11월~12월	별터문화마을 로고 디자인
	생활디자인 설치	11월~12월	게시판, 가변형 벤치, 놀이테이블 제작설치
기록발간	손글씨 달력	2017년 1월	마을 어르신들의 손글씨 달력제작
마을연구	별터100년 발간	11월~2017년 1월	마을환경 기초조사 연구

○ 2017년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학교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9월~12월	우쿨렐레, 손바느질, 연극수업, 우리술 빚기, 꼬마뽕발, 원데이 간편고추장 <마을연계> 서호초등학교 : 놀이지도 만들기 별터경로당 : 인생쓰기, 풍물수업
	마실초대	3월~12월까지 6회 진행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인문학 콘서트 ‘시시콜콜詩詩CALLCALL’, 마을극장, 마을음악회, 송년파티 등
	환대의 식탁	3월~6월까지 4회 진행	마을잡지, 주민추진협의체. 서호초 학부모, 마을청년 초대
	마을축제	2월11 5월20일 9월30일	정유년 정월대보름 옷 · 꽃놀이 별터마을 벼룩시장 별터마을축제
커뮤니티 디자인	별터옛길 거리정원	3월~10월	스테인드글라스, 도자공예 등 작품설치와 커뮤니티 가드닝 진행
기록발간	마을잡지 「별터」	3월~12월	계간지 마을잡지 1호~4호 발간
	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2018년 1월	마을 어르신들 인생을 시집으로 발간

○ 2018년

구분	프로그램	일정	내용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학교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9월~12월	우쿨렐레, 코바느질, 꼬마뽕발, 그림책워크숍, 원데이클래스 (양말인형, 향초)
	마실초대	4월~12월까지 4회 진행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재즈로 구성된 음악회 진행
	마을축제	3월3일 5월19일 9월15일	무술년 정월대보름 옷 · 꽃놀이 별터마을 벼룩시장&놀이터축제 별터마을 가지가지축제
커뮤니티 디자인	별터옛길 거리정원	3월~10월	별터고래, 서호초아이들의 그림타일, 텍스트 드로잉 등 작품 설치와 커뮤니티 가드닝 진행
	마을회관 리모델링	7월~10월	유희공간이던 별터마을회관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	3월~11월	경기도시민참여형마을정원사업 3억 수원형따복공동체 지원사업 2천
기록발간	마을잡지 「별터」	3월~12월	계간지 마을잡지 5호~7호 발간
	사진집 「별터스럽다」	11월	‘사진마음터’ 회원들이 1년간 기록한 별터마을 풍경을 담은 사진집 발간

○ 2019년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학교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9월~12월	음악놀이, 그림책수업, 우쿨렐레, 천연제품 만들기, 생쪽염색, 여름방학 특강, 마을학교 초대의 날
	마실초대	10월~12월까지 2회 진행	클래식음악회 ‘시월의 밤’, 송년파티 ‘오늘하루 클래스 & 파티’
	마을축제	2월23일 5월11일 10월9일	기해년 정월대보름 옷 · 꽃놀이 벼룩시장 feat. 그림에도 오픈식 별터마을 가지가지축제
커뮤니티 디자인	별터옛길 거리정원	3월~10월	별터고래 연작과 기린게시판 설치, 씨앗줄_계 프로젝트와 연계한 커뮤니티 가드닝 진행
기록발간	별터마을잡지	3월~12월	‘마을을 인터뷰 하다’라는 컨셉으로 개편하여 ‘자연, 사람, 물건건물’을 주제로 8,9,10호 발간
	동화책 「별터에 고래가 산다」	12월	별터마을에 고래가 살았다는 상상을 마을동화책으로 제작



서둔동 벌터마을

벌터마을은 ‘넓은 벌판’이란 의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 전체가 논이었다. 조선의 제 22대 왕 정조는 수원화성을 건설하면서 가뭄극복과 성안 백성들의 식량 마련을 위해 4대문 밖에 둔전을 개간하고 농업 수리시설을 만들었다. 이중 화서문 밖의 둔전이 서둔(서쪽의 둔전)이고 저수지가 축만제(서호)이다. 식량수탈을 목적으로 일제가 설립한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는 해방이후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이어지면서 벌터마을 일대는 농업의 중심지로 그 역사를 이어간다. 이제는 두 기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터와 건물, 관련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마을 전체가 논이었던 이곳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놓이고 수원역이 생기면서 변화를 겪는다. 수원역 주변으로 근대 산업시설들이 생기고 노동자 숙소와 주택들이 들어선다. 벌터마을은 농사를 짓던 땅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섬유, 시멘트, 연탄,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화의 땅이 되었다. 1980년대를 전후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마을 전체는 다세대 밀집지역이 된다. 이후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수원역 주변 공장들은 이전하거나 쇠퇴해 갔다. 인접한 벌터마을은 이러한 주변의 변화에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원공군비행장의 전투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전히 마을의 시공간을 가로지른다.

마을의 생활여건이 쇠퇴해 가고 주변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벌터마을은 여전히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지닌 채 시대의 흐름을 견디고 있다. ‘축만제(祝萬堤)’는 농업시설로서의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로부터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청동기시대 집터와 유물, 범씨자국 등이 발견된 여기산 선사유적지도 지역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농업테마박물관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거나 청년과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경기상상캠퍼스)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벌터마을은 현재 인구 5천여 명이 거주하는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택지개발 형태로 비슷한 시기에 주택이 들어섰기에 어찌 보면 마을의 모습은 단조롭다. 하지만 곳곳에 남아 있는 옛 흔적과 자취들은 마치 동화처럼 우리에게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다. 벌터마을의 많은 이야기들이 오래된 흔적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1966년 벌터마을 항공사진

벌터마을 연대기

1700년대	
1796.	정조대왕 수원화성 건설
1799.	둔전을 개간하고 축만제(서호) 축조
1900년대	
1905.01.01.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보통역(수원역)으로 영업 시작
1906.11.02.	서둔동에 권업모범장 설치
1907.	농림학교를 수원으로 이전하고 권업모범장 산하에 둠
1910년대	
1913.	원잠종제조소 수원 설치
1917.	원잠종제조소를 잠업시험소로 개편
1918.	농림학교에서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
1920년대	
1920.	권업모범장에서 농사시험장으로 개칭
1930년대	
1931.	수원군 일형면 서둔리에서 수원을 서둔정(西屯町)으로 편입
1930.12.01.	수려선(수원~여주 간 협궤 철도) 개통
1937.08.06.	수인선(수원~인천 간 협궤 철도) 개통
1940년대	
1948.	수원시 승격으로 서둔동으로 명칭 변경
1950년대	
1952.	한국전쟁 중 터키군에 의해 양카라 고아원 설립 (66년까지 유지)
1953.	선경직물 설립 (1939년 조선의 선만주단과 일본의 경도직물이 합작하여 설립한 직물회사를 최종건이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시작)
1954.	선경직물 노동자 대거 고용 (1천여 명)
1955.	서호국민학교 개교
1960년대	
1961.	수원역사 신축 준공
1962.	농촌진흥청 발족

1964.03.	서울농대, 대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
1965.	서둔야학 교사 건축
1969.	금강스레트 수원공장 준공
1970년대	
1972.3.31.	수려선 폐선
1974.8.15.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개시(서울~수원 간)
1975.04.11.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서울농대생 김상진열사 자결
1976.	아세아시멘트 수원공장 준공
1979.	서둔동 여기산 선사유적지 발굴
1980년대	
1981 - 84.	서호연립, 새마을연립(79년)/선경연립(81년) 장미연립(82년)/제일맨션, 삼성연립(84년)
1990년대	
1996.1.1.	수인선 폐선
2000년대	
200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관악 캠퍼스 이전
2003.2.1.	수원민자역사 준공
2004.	금강스레트 공장 철거
2005.	선경직물 공장 폐쇄
2008.	세화로 화서지하차도 완공
2010년대	
2013.	터키군 참전기념, 양카라 학교공원 개장
2013.11.30.	분당선 연장 개통
2014.	농촌진흥청 전북 이전
2014.	롯데몰 수원점 오픈
2016.	잠업박물관 부지에 빌라단지 조성 서울대 농대부지에 청년문화창작소 오픈 (경기상상캠퍼스) 벌터문화마을사업 시작 (9월3일 문화마실 오픈)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가 축만제를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
2018.	벌터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2019.	벌터마을 커뮤니티 하우스 문화마실(벌터마을회관) 오픈



1966



1974



1995



2000



1981



1987



2008



2016

출처: 연구보고서 「벌터마을 100년」/ D.TRACE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학교, 마실초대, 마을축제 등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벌터문화마을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마을주민 간 관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마을학교는 삶의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며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함께 듣고자 했던 마실초대는 예술에 대한 일상적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마을축제는 공연과 체험, 놀이, 함께 나눌 음식이 있는 즐거운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 마을학교(동아리운영)
- 마실초대, 문화마실 여는날, 현대의 식탁, 물총놀이
- 마을축제(꽃 · 꽃놀이, 벼룩시장, 가지가지축제)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학교, 마실초대, 마을축제 등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벌터문화마을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마을주민 간 관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마을학교는 삶의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며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함께 듣고자 했던 마실초대는 예술에 대한 일상적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마을축제는 공연과 체험, 놀이, 함께 나눌 음식이 있는 즐거운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 마을학교(동아리운영)
- 마실초대, 문화마실 여는날, 현대의 식탁, 물총놀이
- 마을축제(웃 · 꽃놀이, 벼룩시장, 가지가지축제)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학교, 마실초대, 마을축제 등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벌터문화마을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마을주민 간 관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마을학교는 삶의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며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함께 듣고자 했던 마실초대는 예술에 대한 일상적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마을축제는 공연과 체험, 놀이, 함께 나눌 음식이 있는 즐거운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 마을학교(동아리운영)
- 마실초대, 문화마실 여는날, 현대의 식탁, 물총놀이
- 마을축제(꽃 · 꽃놀이, 벼룩시장, 가지가지축제)

-
- ## 공동체 프로그램
- 마을학교, 마실초대, 마을축제 등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벌터문화마을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마을주민 간 관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 마을학교는 삶의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며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사람들과 좋은 음악을 함께 듣고자 했던 마실초대는 예술에 대한 일상적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마을축제는 공연과 체험, 놀이, 함께 나눌 음식이 있는 즐거운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 마을학교(동아리운영)
 - 마실초대, 문화마실 여는날, 현대의 식탁, 물총놀이
 - 마을축제(꽃 · 꽃놀이, 벼룩시장, 가지가지축제)



마을학교

마을학교는 주민들 사이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고 스스로의 자발성에 기초한 건강한 공동체를 키워나가기 위한 공동체 문화학교이다. 생태적인 삶의 가치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배움과 학습, 동아리 활동 등의 소모임을 지원하며, 서호초등학교, 벌터경로당 같은 마을의 기관이나 공간과의 연계 활동을 진행하였다.

벌터따라 직조따라

-
자투리 천이나 버려진 옷으로 타피스트리 및
홀라후프를 이용해 다양한 직물을 만들어 봄

- **기간** : 9월 29일(목) ~ 12월 15(목)
오전 10시 (2시간 / 총10회)
- **장소** : 문화마실
- **대상** : 마을주민 10명
- **강사** : 정은실(직조연구가)

연극 ‘극적인 하루’

-
희곡을 읽고 연극의 기본 요소를 훈련함으로써
연극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는 과정

*마을송년파티에서 창작희곡 낭독 공연 진행

- **기간** : 9월 21일(수) ~ 12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2시간 / 총15회)
- **장소** : 문화마실과 상상캠퍼스 연습실
- **대상** : 지역주민 15명
- **강사** : 조성현(연극연출가)

인문학 수업 ‘텍스트의 포토발’

-
인문학 공부를 목적으로, 미리 선별된 책을 읽고 길
잡이의 안내에 따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
는 형식으로 진행

- **기간** : 10월 4일(화) ~ 11월 22(화)
오후 7시 (2시간 / 총8회)
- **장소** : 문화마실
- **대상** : 지역주민 7명
- **안내자** : 고영직(문학평론가), 박설희(시인)

베이킹 워크숍

-
홈베이킹에 대한 다큐를 시청하고,
실습을 통해 빵과 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았음

*배운 실력을 활용해 벌터마을 송년파티에
맛있는 쿠키를 제공해 주심

- **기간** : 11월 2일(수) ~ 12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2시간 / 총5회)
- **장소** : 문화마실 및 1015컴퍼니 작업장
(경기도 수원시 지동 위치)
- **대상** : 마을주민 10명
- **강사** : 장예원(청년제빵사)





영국 '크레임 하우스'



인문학 수업 '텍스트의 포토북'



베이킹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간편 고추장 만들기’

-
고추장의 제조과정을 이해하고,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고추장 만들어 보기

- 수업기간
◦ 1월 13일(금) /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각1시간 / 총2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마을주민 20명
- 강사 : 김은미(전통발효음식 연구가)

벌터경로당 풍물수업

-
벌터경로당 어르신들이 정월대보름 ‘윷 · 꽃놀이’의 길놀이 진행을 위해 8주간의 풍물 강습을 받으신 후 이후에도 계속 풍물을 배우심

- 수업기간
◦ 1월 5일(목) ~ 2월 9일(목) / 오후 2시 (1시간30분 / 총8회)
◦ 4월 3일(월) ~ 6월 26일(월) 오후 2시 (2시간 / 총7회)
- 수업장소 : 벌터경로당
- 참가대상 : 벌터경로당 회원
- 참가인원 : 10명
- 강사 : 최수영(풍물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우쿨렐레 수업

-
생활 속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인 우쿨렐레 수업을 아이반과 성인반 개설

- 수업기간
◦ 상반기>
3월 20일(월) ~ 5월 29일(월) / 오후 7시 (2시간 / 총10회)
◦ 방학특강
7월 3일(월) ~ 8월 21일(월) / 오후 7시 (1시간 / 총8회)
◦ 하반기
9월 11월(월) ~ 12월 18일(월) / 오후 7시 (2시간 / 총10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벌터마을 주민(어린이 및 성인)
- 참가인원 : 50명
- 강사 : 윤도희, 이희제(우쿨렐레 강사)

손바느질

-
손바느질의 기본적인 방식을 익히고 작은 생활소품 등을 만들어 봄

- 수업기간
◦ 상반기
3월 21일(화) ~ 5월 30일(화) / 오전 10시 (2시간 / 총10회)
◦ 하반기
9월 13월(수) ~ 11월 29일(수) / 오전 10시 (2시간 / 총10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벌터마을 주민
- 참가인원 : 20명
- 강사 : 김지현(페브릭 작가)



원데이 클래스 ‘간편 고추장 만들기’



공동체 프로그램



연극수업
아를레킨수업



제니퍼
수업

연극수업

-

신체 및 감정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연기훈련을 진행하고 공동체 연극의 가능성을 탐구 하였으며, 참여자 각자의 개인 이야기를 공동창작극 형태로 엮어 마을축제에서 공연 진행

수업기간

- 상반기 4월 4일(화) ~ 5월 23일(화) / 저녁 7시30분 (2시간 / 총8회)
- 하반기 6월 13일(수) ~ 9월 29일(수) / 저녁 7시30분 (2시간 / 총15회)
- 수업장소 : 서호초등학교 자유놀이실 및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무아지경
- 참가대상 : 벌터마을 및 서수원 거주 주민
- 참가인원 : 25명
- 강사 : 조성현(연극연출가)

우리 술 빚기

-

사라진 가양주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전통주를 직접 빚어보기

- 수업기간 : 4월 7일(금) ~ 4월 28일(금) 오전 10시 (2시간 / 총4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벌터마을을 주민
- 참가인원 : 8명
- 강사 : 최혜숙(전통주연구가)

인생쓰기

-

글쓰기, 드로잉, 구술을 통해 쏟아내신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과 경험들을 묶어 시집으로 발간

- 수업기간 : 4월 5일(수) ~ 11월 8일(수) 오후 2시 (2시간 / 총18회)
- 수업장소 : 벌터경로당
- 참가대상 : 벌터경로당 어르신
- 참가인원 : 30명
- 강사 : 송혜숙(소설가), 이정훈(예술교육가)

엄마와 함께 꼬마 텃밭

-

벌터경로당 마당 한 칸에 상자텃밭을 조성하고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수확물로 요리도 하고 벼룩시장에서 판매도 해봄

- 수업기간 : 4월 17일(월) ~ 12월 4일(월) 오후 3시30분 (1시간30분 / 총16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및 경로당 앞 마을텃밭
- 참가대상 : 벌터마을 거주 아이들과 엄마(보호자)
- 참가인원 : 20명
- 강사 : 정선아(텃밭 강사)

서호초등학교 마을놀이지도 만들기

-

서호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과 마을의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아이들이 상상한 놀이시설의 디자인 모형을 제작

- 수업기간 : 4월 5일(수) ~ 6월 14일(수) 오전 11시 (1시간30분 / 총10회)
- 수업장소 : 서호초등학교
- 참가대상 : 서호초등학교 3학년 2반 아이들
- 참가인원 : 20명
- 강사 : 이정훈(예술교육가)



명곡수영

우리 술 빚기



공동체 프로그램



인생 쓰기

엄마와 함께 꼬마텃밭

서호초등학교 마을놀이지도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
마을주민이 재능 강사로 나서 향초와 라이언 양말
인형 만들기 진행

- 수업시간
 - 향초 : 2018년 3월 14일(수) / 오전 10시~ 오후 12시
 - 양말인형 : 2018년 3월 28일(수) / 오전 10시~ 오후 12시
- 수업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벌터마을 주민
- 참가인원 : 20명
- 주민강사 : 향초 엄미경, 양말인형 송진영

우쿨렐레

-
하와이 민속악기인 우쿨렐레의 기본 연주법을 배우
고 합주 진행

- 수업기간
 - 상반기 4월 2일(월) ~ 6월 18일(월) 저녁 7시
(2시간 / 총 10회)
 - 하반기 7월 23일(월) ~ 10월 29일(월) 저녁 7시
(2시간 / 총 10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어린이 및 성인반 별도 운영
- 강사 : 이희제(우쿨렐레 강사)

코바느질

-
코바느질을 배우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소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

- 수업기간 : 4월 4일(수) ~ 6월 20일(수) 오전 10시
(2시간 / 총 10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벌터마을 주민
- 강사 : 김혜경(코바느질 강사)

꼬마텃밭

-
벌터경로당 앞 작은 공원에 상자텃밭을 조성하여 아
이들과 함께 채소류 등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된 농
산물로 요리를 해봄

- 수업기간 : 4월 2일(월) ~ 7월 2일(월) 오후 3시 30분
(1시간30분 / 총8회)
- 수업장소 : 문화마실 및 경로당 앞 마을텃밭
- 참가대상 : 벌터마을 거주 아이들(부모님)
- 참가인원 : 20명
- 강사 : 정선아(텃밭 강사)

그림책 워크숍

-
새롭게 조성될 주민 커뮤니티 시설 내에 그림책 도
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서호초등
학교 북맘회원분들과 그림책 읽기 워크숍 진행

- 수업일시 : 5월 23일(수) 오전 11시 ~ 12시 30분
- 수업장소 : 서호초등학교 도서관
- 참가대상 : 서호초등학교 북맘회원
- 참가인원 : 15명
- 강사 : 박서영(작가, 이상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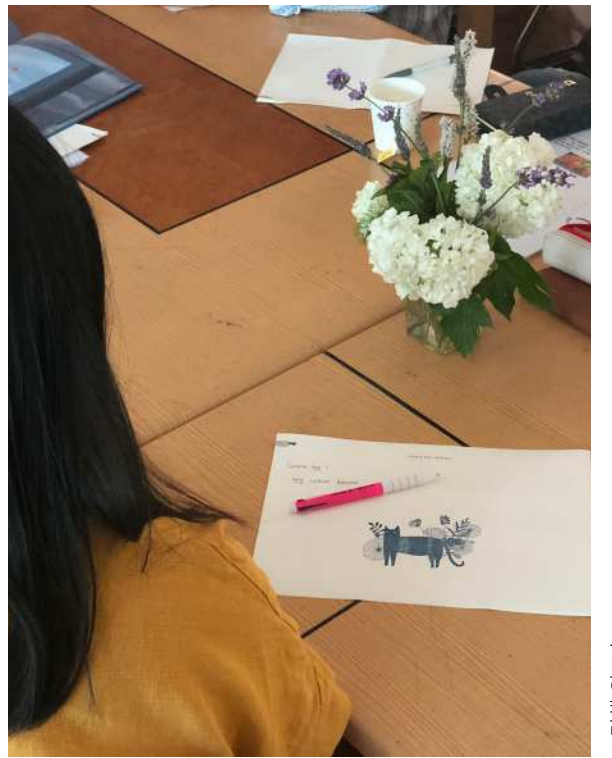
원데이 클래스



우쿨렐레



꼬마텃밭



그림책 워크숍



<div>우쿨렐레 수업</div> <div>-</div> <div>생활 속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인 우쿨렐레 수업을 아이반과 성인반으로 진행</div>	<div><div>· 수업기간</div><div>◦ 상반기 3월 25일(월) ~ 6월 10일(월) 저녁 7시 (2시간 / 총12회)</div><div>◦ 하반기 9월 16(월) ~ 12월 2일(월) 저녁 7시 (2시간 / 총12회)</div><div>· 수업장소 : 문화마실</div><div>· 참가대상 : 벌터마을 주민(어린이 및 성인)</div><div>· 참가인원 : 30명</div><div>· 강사 : 김선희(우쿨렐레 강사)</div></div>
<div>음악놀이</div> <div>-</div> <div>음악의 기본 요소를 배우고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즐거움을 통해 음악과 친해지기</div>	<div><div>· 수업기간</div><div>◦ 상반기 4월 2일(화) ~ 6월 25일(화) 오후 3시30분 (1시간30분 / 총12회)</div><div>◦ 하반기 9월 19일(목) ~ 12월 12일(목) 오후 3시30분 (1시간30분 / 총12회)</div><div>· 수업장소 : 문화마실</div><div>· 참가대상 : 벌터마을 7,8,9세 어린이</div><div>· 참가인원 : 20명</div><div>· 강사 : 주윤아(첼리스트, 음악놀이 강사)</div></div>
<div>그림책 수업</div> <div>-</div> <div>그림책을 읽고 오감을 자극하는 연관된 활동을 하며 엄마와의 스킨십 갖기</div>	<div><div>· 수업기간</div><div>- 상반기 3월 28일(목) ~ 6월 20일(목) 오후 4시 (1시간30분 / 총12회)</div><div>하반기 9월 17일(화) ~ 12월 10일(화) 오후 4시 (1시간30분 / 총12회)</div><div>· 수업장소 : 문화마실</div><div>· 참가대상 : 벌터마을 4,5,6세 어린이</div><div>· 참가인원 : 20명</div><div>· 강사 : 김미경(그림책 강사)</div></div>
<div>원데이 클래스 ‘생쪽염색’</div> <div>-</div> <div>쪽 염색은 보통 염료를 끓여서 하지만, 생쪽염색은 쪽잎을 찢어 자연 그대로의 색을 얻는 방식으로, 일년에 딱 한번 쪽이 나는 이 시기에만 해 볼 수 있는 귀한 염색임</div>	<div><div>· 수업기간 : 8월 19일(화) 오전10시 (2시간)</div><div>· 수업장소 : 문화마실</div><div>· 참가대상 : 벌터마을 거주주민</div><div>· 참가인원 : 10명</div><div>· 강사 : 윤희경(천연염색가)</div></div>

<div>천연제품 만들기 워크숍</div> <div>-</div> <div>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만을 이용해 만들어 보는 천연제품 워크숍을 주민모임 형태로 진행</div>	<div><div>· 수업기간 : 9월 ~ 12월까지 매월 1회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div><div>9월 비누 샴푸 / 10월 배쓰밤, 립밤 / 11월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 12월 샴푸, 룸스프레이</div><div>· 수업장소 : 문화마실</div><div>· 참가대상 : 벌터마을 주민</div><div>· 참가인원 : 10명</div><div>· 강사 : 이은경(천연제품에 관심이 많은 벌터마을주민)</div></div>
------------------------------------------------------------------------------------------------------------------------	-------------------------------------------------------------------------------------------------------------------------------------------------------------------------------------------------------------------------------------------------------------



공동체 프로그램



10월 10일



생존영사



우쿨렐레



그림책수업



공동체 프로그램



천연제품 워크숍

2019 여름 방학(계절)특강

마을학교가 쉬어가는 계절인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진행하는 문화마실 계절 특강 진행

- 천연화장품 만들기
- 수업기간 : 7월 23일(화), 30일(화) 오후 2시~4시 (총2회)

· 수업내용 : 천연원료로 직접 만드는 DIY화장품
(폼클렌징+로션/샴푸)

· 참가대상 : 마을주민 누구나

· 주민강사 : 이은경
(건축을 전공한 천연제품 만드는 딱따구리)

- 어린이 건축학교
- 수업기간 : 2019년 8월 5일(월) ~ 8월 7일(수)
오후 1시~2시30분 (총3회)

· 수업내용 : 내가 살고 싶은 집 모형 만들기

· 참가대상 : 초등학교 3학년~6학년

· 주민강사 : 이은경
(건축을 전공한 천연제품 만드는 딱따구리)

- 독서 프로그램
- 수업기간 : 8월 5일(월) ~ 8월 26일(월) 오후4시40분~6시
(총4회)

· 수업내용 :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2’
책 읽고, 전시관람

· 참가대상 : 마을주민 누구나

· 재능기부 : 최현주(책은 많이 읽지만 남는 게 없다 말하는
네 아이의 엄마)

- 어린이 중국어 교실
- 수업기간 : 8월 6일(화) ~ 8월 22일(목) 오후1시~2시30분
(총5회)

· 수업내용 :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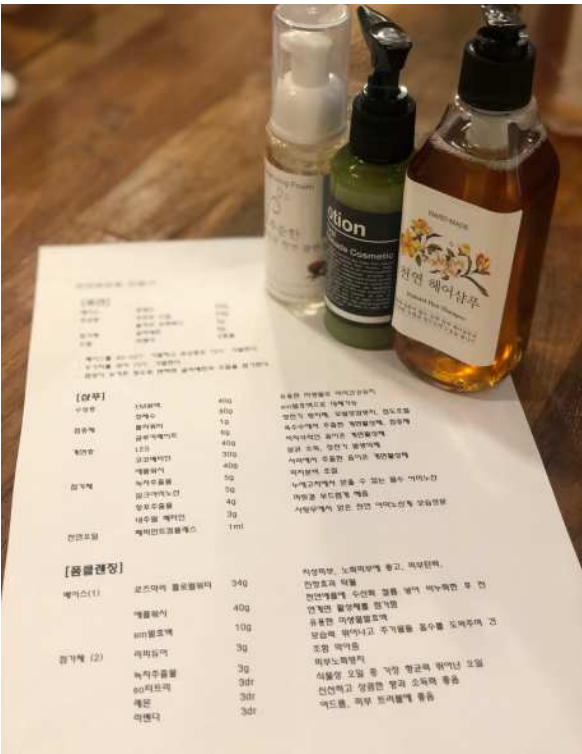
· 참가대상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 주민강사 : 김현희 (중국문화를 사랑하는 3살배기 엄마)

랜드마크서 북



책과 어울리는 어린이



공동체 프로그램



어린이 건축학교

천연화장품 만들기

마을학교 초대의 날

벌터문화마을 마을학교와 동아리 활동 회원들 간의
활동공유와 상호 친목의 시간을 갖기 위한 모임 진행

- 모임일시 : 7월 19일(목) 오후2시 / 9월 27일(금) 오후5시
(총2회)
- 모임장소 : 문화마실
- 참가대상 : 마을학교 수강생 및 동아리 활동 회원
- 참가인원 : 50명





마실 초대

좋은 음악을 마을사람들과 함께 듣기 위해 이 날은 문화마실이 작은 공연장으로 변한다. 마실의 모든 집기를 밖으로 내어놓고 정성스런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면 마을사람들이 삼삼오오 문화마실을 찾아온다. 마실초대에서는 주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던 사람들도 차츰 아주 편하게 음악을 즐길 줄 알게 되었다. 아이들도 맨 앞줄에 앉아 연주자의 연주를 유심히 바라보며 집중한다.

문화마실 인근 주민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며 주민설문 조사에 대해 공유하고 문화마실을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설명 드리는 자리 마련

-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프로그램 : 인사와 자기소개, 주민 리서치 공유,
문화마실 공간 사용법 소개
- 공연 : 인디밴드 잠꾸리 앤 사뿐나



별터문화마을 자료집

현악사중주의 연주와 그에 어우러진 성악곡들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콘서트 가이드 하은영 선생과 함께 한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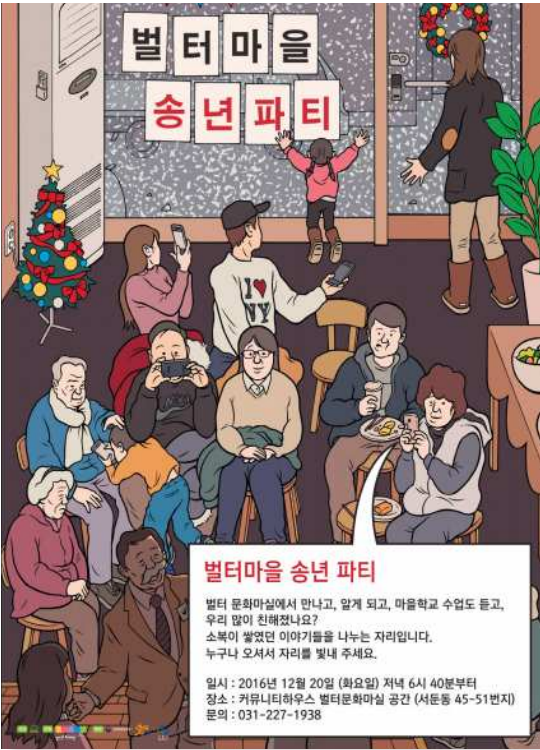
-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연주프로그램 :
 - O sole mio (성악 + 현악)
 - Minuet
 - Haydn Symphony no.94 '놀람'
 - 10월의 어느 멋진날 (성악 + 현악)
 - Eine Kleine nacht music (아이네 크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 Gabriel's Oboe (가브리엘즈 오보에)
 - Salut d' amour
 - Por una cabeza
 - libertango (리베라 탱고)



공동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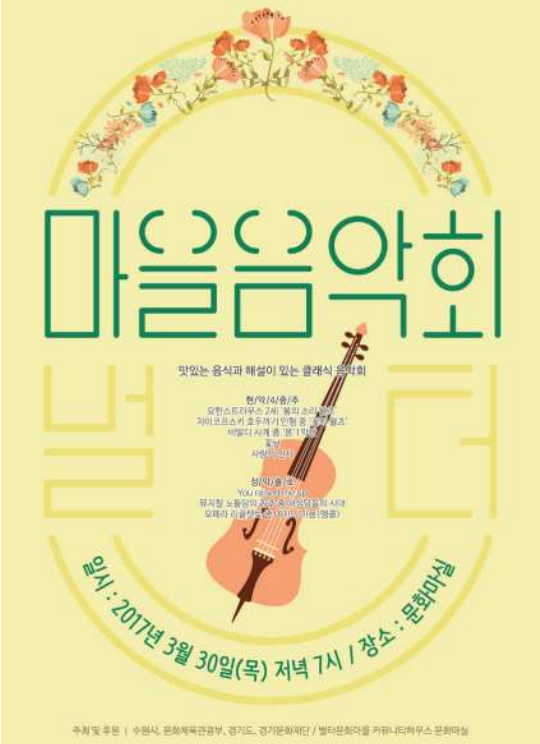
2016년의 짧은 기간 만났던 사람들을 문화마실에 초대해 연주도 듣고 우쿨렐레 수업 아이들의 공연과 기증받은 물품 경매도 진행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함

-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프로그램 : 마을주민 방명일어르신의 풍선아트, 시 낭송, 별터 경매
- 공연 : 해금, 주민들의 우쿨렐레 연주



‘봄의 향연’이란 주제로 봄에 어울릴 만한 음악들로 구성하여,
음악과 함께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

- 일시 : 2017년 3월 30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연주프로그램
- 현악 4중주
- 요한스트라우스 2세 ‘봄의 소리 왈츠’
-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 비발디 사계 중 ‘봄’1악장
- 꽃날
- 사랑의 인사
- 성악 솔로
- You raised me up
- 뮤지컬 노틀담의 꼽추 중 대성당들의 시대
- 오페라 리골렛토 중 여자의 마음(앵콜)
- ※ 콘서트가이드 하은영



‘시詩가 처음 내게로 왔을 때’라는 주제로 초대 시인의 대표
시와 마을주민들의 자작시를 낭송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음

- 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초대시인 : 박설희, 서안나
- 프로그램
- 시인의 애송시 낭송과 감상
- 시가 처음 내게로 왔을 때,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
- 시인의 대표 시 낭송과 주민 자작시 낭송
- 오보에 연주 : 도니제티 오보에 소나타, 가브리엘의 오보에 (연주 박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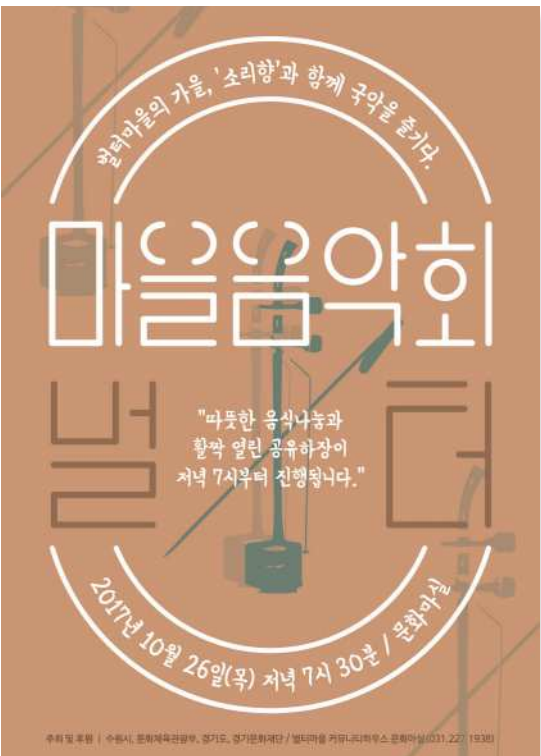
오늘은 문화마실이 영화관으로 변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를 상영

-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프로그램 :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상영



가야금, 해금, 장구, 대금, 피리 등의 국악기와 경기민요가
어우러진 국악 실내악 공연을 마련하여 깊어가는 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함

- 일시 : 2017년 10월 26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연주 프로그램
산조합주
대금독주 ‘요천순일지곡’
해금과 가야금의 이중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산도깨비, 소금장수, 경기민요, 서도, 남도 민요



오페라 및 탱고 음악을 주제로 목관, 금관, 현악으로 구성된 3가지 음식의 실내악 공연

-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연주 프로그램
 - Habanera from “Carmen”
 - Triumphal March from “Aida”
 - Summertime from “Porgy and Bess”
 - Nessun Dorma from “Trandot”
 - Gabriel ‘s Oboe - Ennio Morricone
 - Por Una Cabeza
 - Libertango - A. Piazzolla
 - 앵콜(크리스마스 캐롤)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주민들을 초대해 동지팔죽도 나누고
‘인생이 다 시지, 뭐’에 실린 어르신들의 시낭송과 음악연주
및 깜짝 경매도 진행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5시30분
- 장소 : 문화마실
- 프로그램 : 동지 팔죽 나눔, 시낭송, 새해 소원 쓰기,
활짝열린 공유하장
- 벌터경로당 어르신들의 시 낭송
(한춘자, 정순자 어르신 & 우쿨렐레 신가람)
- 아코디언 연주(연주 박세영)
por una cabeza
리베르 탕고
하얀 연인들
백학
- 우쿨렐레 연주(성인반)
- 깜짝 경매
- 우쿨렐레 연주(아이들반)
- 엔딩 연주 및 문화마실 운영진 공연



산뜻한 봄에 어울리는 클래식 연주와 성악곡들로 구성된
마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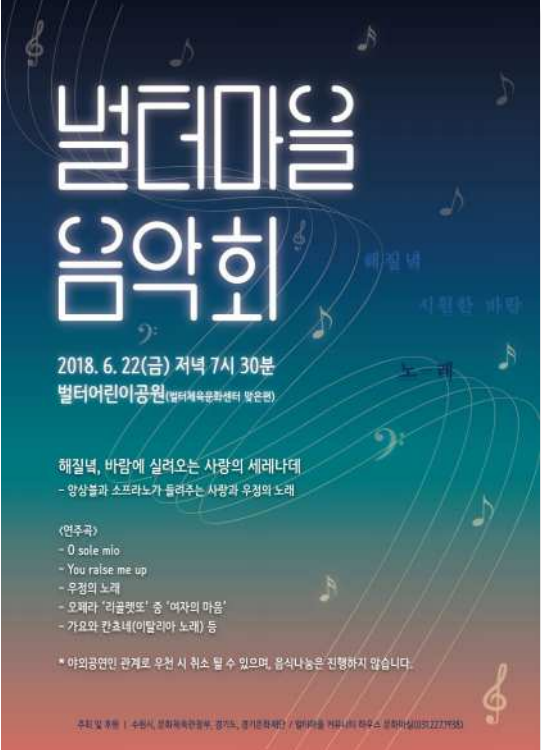
-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 연주 프로그램
 - 스프링소나타 _ Violin 류지연, Piano 이주현
 - 사랑의 인사 _ Violin 류지연, Piano 이주현
 - 물망초 _ Tenor 김훈
 - 이룰 수 없는 꿈 _ Tenor 김훈
 -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 _ Piano 이주현
 - Love affair _ Violin 류지연, Piano 이주현
 - 시네마천국 _ Violin 류지연, Tenor 김훈
 - 쇼팽 물방울 전주곡 : Piano 이주현
 - 차르다시 : Violin 류지연, Piano 이주현
 - Fly me to the moon _ Violin 류지연, Piano 이주현
- ※콘서트가이드 하은영



별터문화마을 자료집

초저녁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사랑의 세레나데와
관악 앙상블

- 일시 : 2018년 6월 22일(토) 저녁7시
- 장소 : 별터어린이공원
- 연주 프로그램
 - <Opening> _ Tp.임병렬, Tb.기수인, Fl.박수환
 - Maple leaf lag : Trumpet & Trumbon
 - Danny Boy : Trumpet, Trumbon & Flute
 - Gabriel's Oboe : Flute solo
 - Under the sea : Trumpet, Trumbon & Flute
 - <남성앙상블과 함께 하는 사랑이야기> _ Ten.채신영, Bar.양범석, Bar.곽상훈
 - 우정의 노래
 - O sole mio (with Sop.송정아)
 - You raise me up
 - 여자의 마음 _ Sop.송정아
 -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中 "All I ask of you"
 - 아름다운 강산
 - 아리랑 환타지 (with Sop.송정아)
- ※콘서트가이드 하은영



공동체 프로그램

어느 멋진 날, 벌터마을에서 만나는
뮤지컬과 오페라, 그리고 재즈

-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저녁7시30분
- 장소 : 문화마실
- 연주 프로그램
 -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뮤지컬 West side story ‘Tonight’
 - 오페라 카르멘 中 ‘투우사의 노래’
 - 뮤지컬 빨래 中 ‘참 예뻐요’
 - 뮤지컬 모차르트 中 ‘나는 나는 음악’
 - 오페라 사랑의 묘약 ‘Una furtiva lagrima’
 - 영화 My fair lady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 Autumn Leaves
 - Imagine
 - 서둔동 블루스 (즉흥 피아노 솔로곡)
- ※테너 박수환, 바리톤 주영규, 소프라노 이은희, 재즈피아니스트 배지훈
- ※콘서트가이드 하은영



구)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서 맞이하는 한 해의 마무리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벌터마을회관)
- 프로그램
 - 마을 사진집 ‘벌터스럽다’ 사진 전시
 - 첼로연주_ 첼리스트 주윤아
 - 마술공연 & 간단한 마술 배우기_ 마술사 이은재
 - 코바늘 동아리 작품 럭키 박스 추첨
 - 우쿨렐레 공연(어린이 : 사랑을 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 성인 : 남행열차, 캐롤 메들리)





시월의 밤

마실초대 14

문화마실 정원마당에서 탱고음악과 성악곡들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함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저녁7시

· 장소 : 문화마실 정원마당

· 연주 프로그램

<음악회 1부>

- 첼로를 위한 작은 조곡 cello.주윤아
- 헨델/할보르센 : 파사칼리아 violin.윤세지 & cello.주윤아
- 아스트로 피아졸라 : 망각 : viola.신별이 & piano.김수민
- 아스트로 피아졸라 : 리베르 탱고 :violin윤세지 & cello.
주윤아 &viola.신별이&piano김수민
- 영화 <여인의 향기> OST 中 까를로스 가르델 :현악 트리
오 & piano김수민

<음악회 2부>

- 허리 시 윤학준 곡 : <마중> bar.정민성 & piano.김수민
- 지킬 앤 하이드 中 지금 이 순간 bar.정민성 & piano.김수민
- 오페라 가르멘 中 투우사의 노래 bar.정민성&piano.
김수민&현악트리오



2019년을 마무리 하며 문화마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마련하고 저녁에는 마을학교 참여자들의 공연과 함께 송년파티를 진행함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2시
- 장소 : 문화마실
- 오늘하루 클래스 2시 ~ 6시
 - 재봉틀 동아리 : 뽀글이 손가방
 - 가족공예 동아리 : 동전지갑키링
 - 코바늘 동아리 : 컵 받침
- 송년파티 6시 30분
 - 그림책 읽기 ‘산타와 함께 춤을’
 - 음악놀이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 우쿨렐레 공연 : 루돌프 사슴코, 창밖을 보라, White Christmas, 캐롤 메들리



＊ 문화마실 여는 날

2016년 9월 3일 서둔동 벌터마을에 ‘벌터마을 커뮤니티 하우스 문화마실’이라는 공간의 문을 열었다. 문화마실은 벌터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매개하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공간의 오픈을 알리기 위해 아침부터 떡을 돌리고 사람들을 초대해 공간을 소개하고 작은 음악회도 진행했다.

- 일시 : 2016년 9월 3일(토) 오후 3시
- 장소 : 문화마실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24-2)

주요 프로그램

1부

- 오프닝 연주 :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
- 트럼펫 솔로(TP. 백원직)

- 공간 소개 상황극 : 배우 서승원, 이지희가 공간에 대한 설명을 상황극으로 진행

- 참석자 소개

- 행운의 편지 교환

2부 하우스 콘서트

① 현악 사중주

- Nella Fantasia(넬라 판타지아)
- _ Ennio Morricone(엔니오 모리꼬네)
- Moning Mood(아침 기분)
- _ Edvard Grieg(에드바드 그리그)
- Elne Kleine Nachtmusik(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 _ W.A.Mozart(모차르트)
- 클라렛 (Vn1:김미소 Vn2:심지예 Va:유진아 Vc:이예슬)

② 출장작곡가 김동현

사람들의 이야기에 곡을 붙여 들려주는 음악가



* 환대의 식탁

환대의 식탁은 마을주민이나 문화마을 사업을 함께 하는 이들을 ‘문화마실’에 초대해 맛있는 음식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환대의 식탁에 참여하는 대상은 매번 다르다. 벌터마을에 새로 이사 온 주민, 회사 생활에 지치거나 육아에 지친 사람, 동네 친구를 만들고 싶은 청년, 마을잡지를 함께 만드는 이들까지. 환대의 식탁은 매월 새로운 이웃을 초대하며 우리 안에 ‘환대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 한다.

○ 3월의 환대의 식탁

- 일시 : 2017년 3월 7일 오후 12시
- 초대 : 마을잡지 벵터'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 메뉴 : 케이준치킨샐러드, 감바스 알 아히요,
크림 및 토마토스파게티

○ 4월의 환대의 식탁

- 일시 : 2017년 4월 11일 오후 12시
- 초대 : 벌터문화마을 추진협의회
- 메뉴 : 보쌈과 쌈, 된장국과 밥, 샐러드

○ 5월의 환대의 식탁

- 일시 : 2017년 5월 25일 오후 12시
- 초대 : 서호초등학교 학부모
- 메뉴 : 오코노미야키, 돈부리, 오이냉국

○ 6월의 환대의 식탁 ‘혼술 말고 함술’

- 일시 : 2017년 6월 16일 저녁 7시
- 초대 : 벌터마을 거주 청년



불타는 금요일
 알고 보면 다들 딱히
 SNS 들여다보면
 나빠고 다들 즐겁네
 혼술이 대세라지만
 합술하고 싶네

2017. 6. 16. FRI. PM 7. 벌티마을 커뮤니티하우스 문화마실
 참가대상 : 벌티마을 거주 청년 10명(선착순 마감,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 전화 031.227.1938(평일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주최 및 후원 | 수원시,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벌티마을 커뮤니티하우스 문화마실

＊ 물총놀이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한 첫 번째 토요일에 문화마실 앞 정원마당에서 물총놀이를 진행하였다. 마을의 엄마들과 함께 준비한 행사는 작은 아이들을 위한 풀장과 물풍선 던지기 등의 놀이가 준비되었고 놀고 나면 출출해질 배를 채워줄 오뎅과 떡볶이도 준비되었다. 날씨가 흐리고 전날까지 비가 온 탓에 날은 조금 쌀쌀했지만 아이들은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도 물총놀이를 멈출 줄 몰랐다. 함께 나온 어른들도 덩달아 물세례를 받으며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 일시 : 2019년 7월 20일(토) 오전11시 ~ 오후2시
- 장소 : 문화마실 정원 마당
- 프로그램 : 물총놀이, 아기풀장, 샤워커튼, 물풍선 던지기, 패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폭포





마을 축제

우리는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비일상성을 경험한다. 마을에서는 전통의 일부를 축제화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축제를 통해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벌터문화마을에서도 매년 정월대보름 ‘웃 · 꽃놀이’, 봄날의 ‘벼룩
시장’, 가을의 ‘가지가지축제’를 진행해 왔다.

＊ 벌터마을 정월대보름 윷 · 꽃놀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벌터마을은 ‘윷 · 꽃놀이’를 진행한다. 마을회관 마당에서는 윷놀이가 진행되고, 안에서는 경로당 어머니들이 평소 갖고닦은 실력으로 꽃놀이(화투대회)를 펼친다.

농경사회의 세시풍속에서 보름달이 가지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문화의 상징적인 면에서 달은 여신(여성성)을 상징하고 대지는 생명의 어머니로 비유된다. 달의 상징구조는 여성, 출산, 물, 식물과 연관되어 왔다. 땅을 생명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보름달은 곧 풍요의 상징이었다. 벌터마을 또한 농사를 짓던 땅이었기에 예부터 정월대보름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즈음하여 마을의 풍요와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윷가락을 던지고 ‘윷이야~’를 외쳐보자. 치매예방에도 좋다는 화투를 치며 ‘쓰리고~’를 불러보자. 액운이 물러가고 무사태평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2017년 정유년(丁酉年) 정월대보름 윷 · 꽃놀이

- 일시 : 2017년 2월 11일(토) 오전10시
- 장소 : 벌터경로당 앞마당
- 윷놀이 우승자 : 안재석, 표대진
- 꽃놀이 우승자 : 고스톱 강정희, 민화투 최현종

2018년 무술년(戊戌年) 정월대보름 윷 · 꽃놀이

- 일시 : 2018년 3월 3일(토) 오전10시
- 장소 : 벌터경로당 앞마당
- 윷놀이 우승자 : 권순근, 박봉한
- 꽃놀이 우승자 : 고스톱 최순금, 민화투 정순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정월대보름 윷 · 꽃놀이

- 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오전10시
- 장소 : 문화마실 정원마당
- 윷놀이 우승자 : 이대형, 최주진
- 꽃놀이 우승자 : 고스톱 한춘자, 민화투 박정숙

주요내용

- 벌터경로당 어르신들의 길놀이
- 윷놀이장과 꽃놀이장 선수선서
- 윷놀이와 꽃놀이 진행
- 윷꽃클럽
- 제기차기
- 우승자 시상식
- 행운권 추첨





＊ 봄의 벼룩시장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나에겐 소용이 없어진 물건들이 있다. 아직 쓸만한 것들, 다 른 사람에게 가면 더욱 빛을 발 할 물건들, 작아져 못 입는 옷이나 맘에 들어 샀지만 지금은 잘 입지 않는 옷들까지. 그냥 버리긴 아까운 것들을 벼터마을 벼룩시장에서 나누어 주거나 또는 저렴하게 팔아 보자. 벼터마을 벼룩시장은 일 년에 한번 따뜻한 봄날에 열리는데, 옷에서 아이들 장난감, 책, 음반, 기념될 만한 용 품 등이 다양하게 나온다.

2017년 벼터마을 벼룩시장

벼터경로당 앞마당에서 열린 벼터마을의 첫 벼룩시장으로 주민들과 서호초등학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소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옷, 학용품 등을 가지고 참여했음

- 일시 : 2017년 5월 2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벼터경로당 앞 마당
- 프로그램
 - 서호초등학교 아이들과 주민들의 벼룩시장
 - 참여자 모두가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빅 런치’
 - 서호중학교 댄스팀 ‘서벤저스(윤다빈, 장윤아, 김보경)’ 공연
 - 마을학교 우쿨렐레 공연
 -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아트풍선
 - 100원 경매 진행



2018년 벌터마을 벼룩시장 & 놀이터 축제

2018년의 벼룩시장은 마을의 유일한 놀이터인 벌터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을 보다 창의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활동하는 벌터 온(ON) 엄마들과 놀이터 축제로 진행

- **일시** : 2018년 5월 19일(토) 오전 10시
- **장소** : 벌터 어린이 공원
- **프로그램**
 - 장난감, 의류, 책, 수제품 등 총 26개 팀 참여
 - 아이스커피, 아이스티, 식혜, 김밥,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남남텐트
 - 비석치기, 사방치기 등의 전통놀이와 조합놀이대를 활용한 새로운 놀이의 개발
 - 그룹 나무소리(아코디언, 기타, 바이올린, 보컬로 구성)의 버스킹
 - 그린섬 콘테스트 (우승자 : 송수현)
 - 벌터마을학교 우쿨렐레 팀의 공연
 - 서호초등학교 방송댄스 동아리 공연
 - 짹짹 게임, OX 퀴즈



2019년 벌터마을 벼룩시장 feat. 그림에도 오픈식

40여 년 전 마을사람들의 십시일반으로 지어진 마을회관은 근래까지 경로당으로 사용되어 오다 새로운 경로당이 지어지면서 몇 년간 비어있었음. 비어있는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2018년 겨울부터 문화마을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별도의 오픈식을 하지 못하였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림에도, 봄에 진행되는 벼룩시장에 맞춰 공간의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오픈식을 함께 진행

- 일시 : 2019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소 : 문화마실 정원마당
- 프로그램
 - 오프닝 공연 : 타악그룹“뽀레뽀레“
 - 벌터마을 벼룩시장 & 그림에도 오픈식 진행
 - 1.참석자소개 및 축하인사
 - 2.벌터마을회관 소개 (송헌재 회장님)
 - 3.오픈 커팅식
 - 4.기부나무 참여식
 - 타악그룹 “뽀레뽀레“ 본 공연
 - 버스킹(1) : 아코디언 & 기타 ‘four and six’의 공연
 - 버스킹(2) : 주윤아의 스토리텔링과 함께하는 첼로연주
 - 엔딩 공연 : 소프라노 김은지 & 피아노 이영선 공연(5곡)



＊ 가을의 가지가지축제

문화의 힘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개체가 어우러질 때에만 이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마을에서 하는 축제의 재미와 의미도 사람들이 다양한 놀이를 보고 즐기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진다. 여러 가지 공연 및 놀이, 체험프로그램과 맛있는 먹거리를 적절히 배치하고 잘 운용하면 누구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다. 마을의 갖가지 재주와 즐거움이 함께 하는 곳이 바로 벌터마을 가지가지축제다.

2017년 벌터마을축제

가을에 열린 첫 축제는 서호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을주민들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브라스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쇼, 마을 학교 수업팀의 공연, 벌터어린이공원꾸미기, 식물심기 체험, 자전거 정비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음

- 일시 : 2017년 9월 30일(토) 오전 11시 ~ 오후 3시
- 장소 : 벌터어린이공원
- 프로그램 ↓

구분	세부내용
공연	· 브라스밴드 오프닝 공연(Gold Powder)
	· 마술공연(마술사 이은재)
	· 벌터문화마을 마을학교 연극 수업팀 공연(공연명: 나무)
	· 벌터문화마을 마을학교 우쿨렐레 수업팀 공연(어린이반 / 성인반 공연)
놀이	· 서호초등학교 방송댄스동아리 공연
	· 함께 즐기는 비눗방울 놀이
	· 보물찾기: 공원 곳곳에 숨겨진 총 100개의 선물을 찾아라!(어린이, 성인 구분하여 진행)
체험	· 가위바위보 꼬리잡기(최종 우승자에게 선물 증정)
	· 캐리커처
	· 벌터어린이 공원 함께 꾸미기
출장나온 공유하장	· 식물심기 체험
	· 자전거 정비 버스킹(진행: 약속의 자전거)
먹거리	· 나눔텐트
	떡볶이, 김밥 치킨팝, 부침개, 음료 등 판매(서호초등학교 학부모회 진행. 판매 수익금은 서호초등학교 장학금으로 사용)



2018년 벌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두 번째 가을축제부터는 공연, 놀이, 체험 등 마을의 갖가지 요소들을 모아 즐긴다는 의미로 벌터마을 가지가지 축제라 부르기 시작함. 첼로연주와 마술쇼, 탱고 초대 공연과 서호 초등학교 음악 동아리 ‘대일 밴드’의 공연, 벌터마을 백일장, 출장나온 공유하장, 단체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됨

- **일시** : 2018년 9월 15일(토) 오전 11시 ~ 오후 3시
- **장소** : 벌터어린이공원
- **프로그램** ↓

구분	세부내용
오프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오프닝(사회자: 이정훈) · 첼로 버스킹_주윤아 총 5곡 연주(사랑의 인사, 학교 가는 길, 이웃집 토토로, 백조, 라라랜드 에필로그) · 마술 & 벌룬 쇼_이은재: 요술풍선을 활용한 너버벌 퍼포먼스 진행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고 버스킹_샤론 & 태희: 총 3곡 공연(Por Una Cabeza, Rosamel, Gallo Ciego) · 기타 & 건반 &보컬 버스킹_아마추어 음악단 총 4곡 공연(먼지가 되어, 걱정 말아요 그대, 정말로 사랑했다면, 앵콜곡) · 서호 초등학교 밴드동아리 공연_대일밴드: 총 2곡 공연(숲속을 걸어요. 나는 나비)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터마을 백일장(시상식 14:0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詩) 또는 짧은 글 - 주제 : 벌터마을, 시와 탱고, 자유주제(3개 중 1개 선택) / 우승자 총 9명 선정 - 아이들 : 박세나, 박하랑, 김군호, 배은주, 이주연 - 성인: 엄미경, 백민진, 김성진, 김소라, 최우형 · 출장나온 온 공유하장: 타로카드,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LED실팽이 만들기, 나무열쇠고리 만들기, 벌터어린이공원꾸미기, 천연 디퓨저 만들기, 압화 자석 만들기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놀이 - OX퀴즈
엔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사진 촬영



2019년 벌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한글날 진행된 2019년 벌터마을 가지가지 축제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과 한글을 주제로 백일장을 진행하
고 우리말 OX퀴즈를 진행하였음. 해를 거듭할수록 마을축
제에 참여하는 이들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마을학교와
동아리를 통해 익힌 노래와 악기연주, 수공예 실력이 높아
지니 자연스럽게 마을축제의 흥도 높아짐

- **일시** : 2019년 10월 9일(수)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소** : 문화마실 정원마당
- **프로그램** ↓



구분	세부내용
오프닝	· 벌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오프닝(사회자: 이정훈)
공연	· 한글날 어린이 특별공연: 극단 <문> ‘제랄다와 거인’
	· 해금 & 피아노 공연: 다스름(in my blue, 활의 노래, Last rain, the moon, 앵콜곡 : 총 5곡)
	· 주민참여공연_1 문화마실 기타동아리 ‘딩기당당’ 공연 (I’m yours, 너의 의미, 변해가네 : 총 3곡)
체험	· 주민참여공연_2 벌터마을학교 음악놀이 친구들과 주윤아의 ‘최고의 작품’
	· 주민참여공연_3 서호초등학교 방송댄스팀 ‘서호아이돌’의 공연(kill this love, 작은 것 들을 위한 시: 총 2곡)
	· 벌터마을 백일장(feat. 캘리그래피)
놀이	· ‘한글 OX퀴즈’ 진행
	· 캐리커처, 가족공예 체험, 나에게 쓰는 스티커 엮서
엔딩	· 제기차기, 투호놀이
	· ‘한글OX퀴즈’ 시상식 (우승자 : 전성현 외 1인) 및 그린썸콘테스트 시상식 (송수현 외 1인)
엔딩	· 백일장 시상 (어린이 우승자: 강하린, 인기상: 최유진) 및 원고평가(이영관)
	· 단체사진촬영 및 행사종료



커뮤니티 디자인

디자인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디자인은 미적 감각이나 실용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협력과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도 있고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 마을 안에서의 서로간의 관계망이 촘촘할수록 건강한 공동체일 확률이 높아진다. 일방적 표현을 수용하는 형태가 아닌 관계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은 무엇일까?

벌터문화마을은 마을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을 연구 분석하고 장소적 맥락에 맞는 디자인 요소를 생각했으며 그것을 적용함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왔다.

- 로고 디자인
- 생활디자인 설치
- 벌터옛길거리정원
- 벌터마을회관 리모델링

로고 디자인 개발

○ 마을에 대한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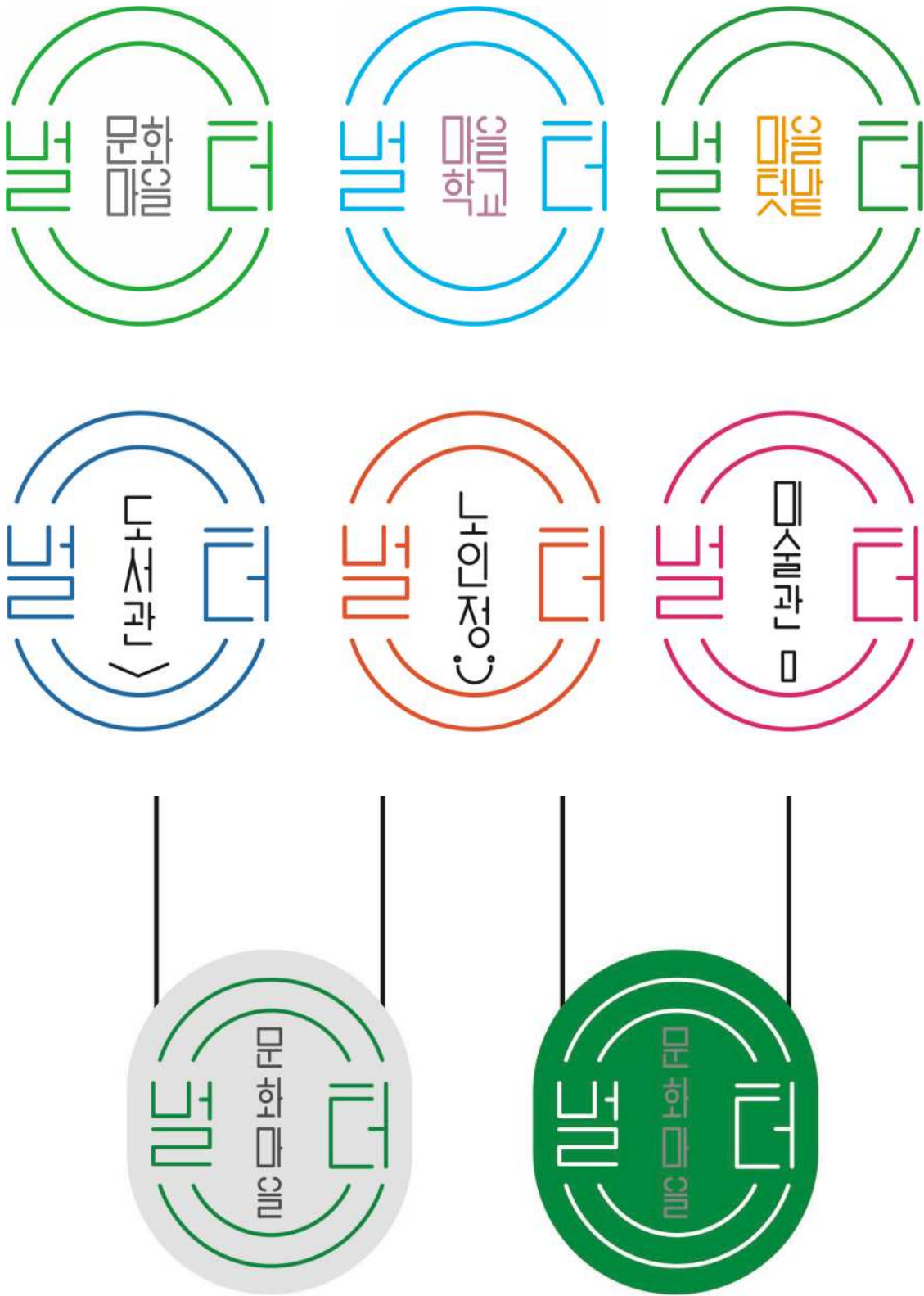
벌터마을 주민 중 ‘벌터마을’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
이 마을의 오래된 지명인 ‘벌터’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 보임
마을을 상징하거나 대표할 만한 이야기, 특산물, 이미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디자인 방향

- 1. 심볼이나 이미지로서의 브랜딩이 아닌 벌터란 단어 자체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
- 2. ‘벌터문화마을’ 혹은 ‘문화마을벌터’로 읽히도록 디자인해 벌터마을 사이에 문화를 집어넣는 것이 아닌 문화마을로서 계획된 벌터마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
- 3. 사라진 것에 대한 향수로서의 이미지 계획 보다는 현재 그 상태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

사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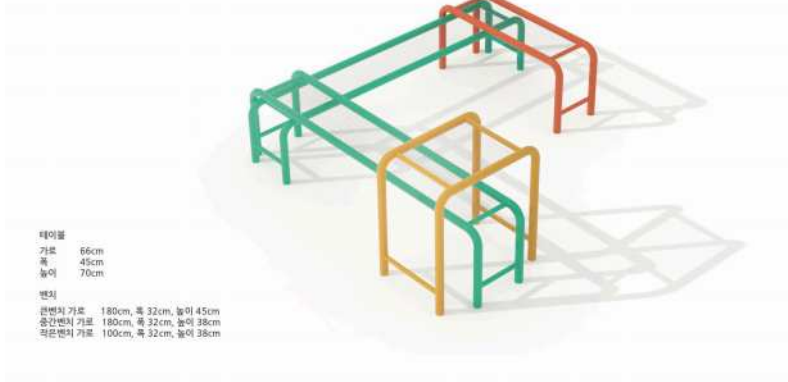
로고 디자인
원예프



생활디자인 설치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는 벌터마을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집이나 상가 앞에 주차금지 표시로 다양한 물건들을 놓아두곤 한다. 행여 바람에 날릴까 의자 위에 돌을 얹기도 하고, 누군가 가져갈까 쇠사슬에 묶어두기도 한다.

제로랩은 이를 새로운 조형적 형태로 인식하여 네 가지 사이즈의 의자와 테이블로 만들었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여러 형태를 만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벤치는 좁은 골목에 삼삼오오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어냈다. 또한 제로랩은 바둑과 장기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물건을 재활용하고 나눠 쓸 수 있는 공유하장, 마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을게시판 등을 벌터마을을 위한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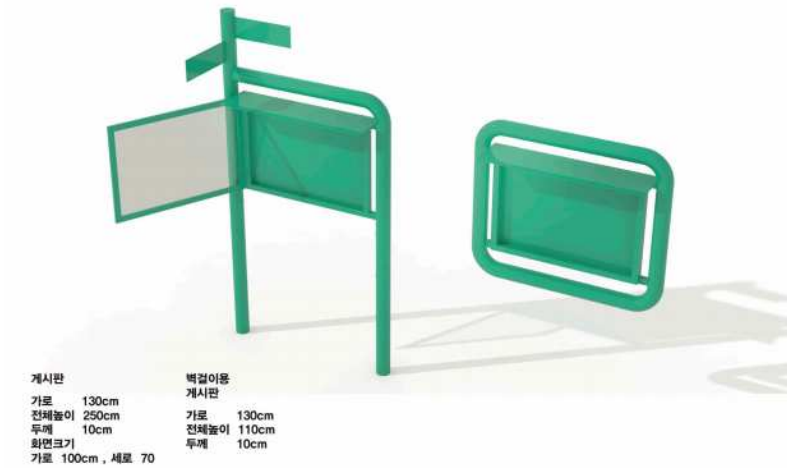


디자인 및 제작

제로랩

-

철, 아크릴, 분체도장_2017



＊ 벌터옛길 거리정원

벌터마을에는 오래된 길이 하나 있다. 예전에 벌터마을 대부분의 땅이 논이었던 시절 벌말(지금의 평동)과 서둔리(지금의 윗서둔동) - 주민들은 경기상상캠퍼스(옛 서울농대 자리) 옆에 위치한 마을을 ‘윗서둔동’, 옛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정문 다리 건너 수원역 뒤편에 위치한 마을을 ‘아랫서둔동’ 이라 부르고 있다. - 사람들이 왕래하고 소달구지가 다녔을법한, 다랭이논 처럼 구불구불한 논길 사이에 난 소로小路이다. 이 길로 서둔리 아이들과 벌말의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며 옆 마을로 놀러갔다 해질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선경직물에 다니는 여공이 매일아침 잔걸음을 재촉하며 출근했을 것이다. 농부가 모를 내고, 논에 물을 대고, 피를 뽑기 위해 수없이 걸음을 옮겼을 것이고, 가을에 추수한 쌀가마니를 실은 소달구지가 힘겹게 오고갔을 것이다.

벌터마을은 70~80년대에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길이 격자형으로 조성되었지만, 벌말과 서둔리를 잇던 그 소로小路는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이 길을 벌터옛길이라 부르고자 한다. 벌터마을의 역사와 주변경관을 생각해 볼 때 이 길은 다양한 식물들이 풍성한 정원형 거리가 잘 어울리기에 ‘벌터옛길 거리정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오래된 벽에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입히고 마을 옆을 흐르는 서호천의 생태적인 요소를 디자인 모티프로 사용했다. 정원을 만들고 식물을 가꾸는 일은 누군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일이기에 거리정원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예술가들의 작업이 하나둘 늘어나듯 작고 푸른 생명들도 주민들의 참여로 하나둘 거리에 자리 잡길 바란다.



1960년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연결해 주던 길



다세대 밀집지역이 된 지금도 남아있는 옛길의 모습

나비처럼 날아서

조금씩 닳은 듯 다른 물고기들은 더불어 모여 자유로이 유명하고, 나무들은 한 데 모여 작은 숲을 만든다. 작은 나비 떼는 불빛을 따라 모여들고, 물방울은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엄지영 작가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장면들을 도자기 오브제로 빚었다. 이 오브제들은 마을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적 삶의 바램들을 담아 골목길의 벽을 따라 유명하듯 펼쳐진다. 이 작업에는 공방 <목요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

작가
엄지영(도예가, 공방 목요일)
도자기 등 복합매체_2017



공유지대 벽화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이 땅 위의 모든 존재들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물고기만 한 사람이 물속을 헤엄치고 고래는 하늘을 날아다닌다. 오리는 호랑이를 타고 있고, 또 그 위에는 코뿔소가 있다. 이처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과 사람의 실루엣이 서로 중첩되거나 나열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색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창작그룹 비기자는 이 작업을 통해 주민들과 생태적 삶에 대한 질문을 공유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별터1966

‘별터’는 논으로 경작되던 허허벌판이었다. 1966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논과 논 사이에 난 좁은 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길이 바로 별터 옛길이다. 별터마을 옛길에는 구불구불한 논길과 그 이후에 택지개발로 조성된 곧은 골목이 모여 형성된 팔거리가 있고 그곳에는 지금도 사용되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다.

조은하 작가는 1966년 항공사진을 모티브로 하여 공중전화 부스에 옛날 별터마을의 모습과 옛길을 담았다. 과거의 별터마을은 구불구불 조각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다양한 색으로 현재에 투영된다.

작가
조은하(설치미술가)
- 스테인드글라스, 납_2018



게릴라 가드닝

벌터마을 옛길을 따라 푸름 가득한 정원이 생겨난다면, 그곳은 누구나 걷고 싶은 산책길이 될 것이다. 주차와 쓰레기 문제로 얼룩진 좁은 골목길을 편히 쉬고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들기 위해 작가와 정원사들은 마을 안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하여 작은 화단을 만들고 식물들과 어우러지는 작품을 설치했다. 이들의 작업은 벌터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길을 푸른 정원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상상의 첫걸음이다.

짜투리공간 화단 조성

벌터옛길에는 구불구불한 길과 네모난 집이 만나 생겨난 삼각형이나 마름모꼴의 자투리 공간들이 있다. 그러한 공간들은 삭막한 아스팔트길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이 재미있는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곳에 짜투리 공간의 모양대로 커다란 화단을 만들고 여러해살이 식물들을 심었다.

조성장소: OK마트, 셋별장식, 레인보우

옛길따라 허브정원

이상한 일상은 그림책을 읽고 식물을 가꾸며 자급자족을 꿈꾸는 일상을 실천한다. 이들은 예로부터 다양한 증상의 치료제로 쓰이거나 요리의 맛을 더해주는 향신료로 사용되는 허브를 자투리 공간에 심거나 여러 개의 허브 화분을 길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2018년 봄부터 가을까지 벌터옛길을 허브정원으로 가꾸어갔다. 4회에 걸쳐 20여종의 허브를 주민들에게 분양하기도 했다.

걸이화분과 화분 패턴 디자인

벌터마을의 오래된 주택들은 땅의 모양대로 집을 짓거나 생활하며 헐고 덧댄 흔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벌터옛길에 있는 방명일 어르신의 집도 2층 테라스가 마치 사족처럼 ㄱ자로 늘어서 있는데, 그런 구조를 활용해 위에서 내려오는 걸이화분을 장식했다. 다양한 끈을 활용하여 마크라메 기법으로 만든 화분걸이는 그 공간을 돋보이게 한다. 건물 밑 주차 금지 목적으로 늘어놓은 화분은 기하학 패턴으로 디자인 했다.

작업참여

박지수, 이아람, 정선아, 이윤지,
이상한 일상(정원정, 박서영)
-
식물, 복합매체_2017~2019



꽃씨줄_게

벌터옛길거리정원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기 위해 진행한 <꽃씨줄_게>는 자신의 집 앞에 화분을 내어 놓거나 자투리 화단을 함께 가꿔 주실 분들을 모집하는 내용의 엽서와 작은 씨앗 주머니를 줄에 엮어 옛길 따라 설치한 프로젝트다.

담장 길 야생화 화분

꽃씨줄-게를 통해 신청이 들어와 진행한 <담장 길 야생화 화분>은 매일 그 길을 지나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좁은 골목임을 감안하여 서호초 담장을 활용해 걸이형 화분을 설치하였고 양지꽃, 백리향, 두메부추, 톱풀 등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를 심었다.

그린썸(Green Thumb) 콘테스트

그린썸(Green Thumb)이란 ‘식물을 잘 키우는 손’을 의미한다. 마을주민들이 식물을 잘 가꾸길 바라는 마음에 마을축제 때 식물을 분양하고, 다음 축제에 콘테스트를 여는 방식이다. 2017년 가을 축제 때 소국, 고무나무, 테이블야자, 아레카야지 식물을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해 봄 축제 때 잎의 색, 꽃의 유무, 줄기의 굵기 등을 살펴 누가 식물을 잘 키웠는지를 겨루어보았다. 2018년은 허브, 2019년은 야생화를 분양하고 그린썸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벌터문화마을 자료집

달콤한 꿈

어린 시절 누구나 뽑기 기계에 동전 하나를 넣고 스위치를 돌리며 원하는 장난감이 나오길 두 손 모아 기도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작가

유거상(설치미술가)

-

유거상 작가는 추억의 뽑기를 연상시키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를 만들어 이어붙이는 형태로 커다란 고래를 창조했다. 꼬리를 힘껏 치켜 올린 고래는 낡고 오래된 벽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밤하늘의 별로 인도 하는듯한 환상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서호초등학교 앞 낡은 담장에 설치된 뽑기 물고기 고래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다양한 색을 품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성을 표현해 주는 듯하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나무, 오일 크레용, 페인트_2018



커뮤니티 디자인

서호친구들의 도자기그림 정원

서호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관찰하면서 그곳에서 발견한 곤충과 식물, 동물들을 작은 타일에 그렸다. 이렇게 그려진 조각들은 가마에서 구워져 단단하고 빛나는 타일이 되어 학교 담장을 채워나갔다. 아이들은 학교에 오가며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그린 그림을 찾아본다. 타일에 그려진 자연물들이 학교 담장을 장식하면서 마치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듯하다. 다가올 미래에는 아이들이 그린 자연 생명체들 중 어떤 것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작가
윤희경, 김나우, 김은정,
오은주, 최정숙, 최옥경, 김영화
-
타일에 세라믹물감_2018



골목길 위에 삶을 엮다

김영화, 이재림 작가는 벌터문화마을사업을 통해 발간된 연구보고서 <벌터마을 생애사>와 계간지 형태로 발행된 마을잡지<벌터>, 어르신들의 입말을 모아 펴낸 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등에서 발췌한 주민들의 글과 이야기들을 벌터마을 곳곳에 스텐실 형태로 작업했다.

작가
김영화, 이재림
-
페인트_2018

벌터 옛길을 따라 나열된 작업들은 우연히 길을 걷다 만나게 되는 반가운 이웃처럼 우리에게 정겹게 말을 건넨다.



고래 블루스

벌터에 고래가 춤춘다, 서호천에 고래가 살았었다는 동화<벌터에 고래가 산다>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고래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가뭄에 물을 뿌려 해갈해 주고 아이들을 등에 태워 놀아주는 고래의 몸짓은 마을과 함께 추는 블루스와 닮았다. 유거상 작가의 ‘달콤함 꿈’에서 연상된, 순수한 마음을 담은 물고기를 도자기로 굽고 반짝이는 타일과 나무, 그리고 벌터가 어우러져 추는 고래의 블루스를 옛길에 그렸다. 걷는 이들의 발걸음에도 고래 블루스의 리듬이 엿힐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유거상 작가는 고래를 만들고 남은 나무 조각과 도자타일로 기린 부조를 만들고 담장 밑 페인 부분을 메꾸는 방식의 작업을 수행했다.



기린 게시판

2017년 앙카라 공원에 설치되었던 마을 게시판이 노후 되어 문짝이 파손되고 바로 위 나무에서 떨어지는 오염물질로 더럽혀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게시판 구조물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뿔을 달아 기린 형태로 재탄생 시켰다. 나무에서 떨어지던 오염물질을 막아줄 판도 설치했다. 이 기린 조형물은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기에, 그곳을 오가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요소가 되어 줄 것이다. 게시판 부분에는 벌터옛길 거리정원 작업에 대해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작가
유거상
-
철, 용접, 페인트_2019



* 벌터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 마을의 정자나 느티나무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공간이었다. 근대적 형태의 마을회관이 마을마다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이후 새마을운동의 영향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된 최초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때의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각종 동원사업을 위한 전초기지의 성격이었다. 국가의 목적을 위한 동원의 성격으로 시작된 마을회관은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만나고 회의하고 마을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진화해 왔다. 이제 예전의 마을회관은 경로당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시골 마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벌터마을회관은 1984년 지어졌다. 마을본이 땅을 기부하시고 수원시에서 벽돌과 시멘트를 지원받아 주민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며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마을일을 위한 주민들의 각종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벌터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 시대가 끝나고 마을의 형태가 도시화 되면서 그 쓰임을 다했다. 이 후 한동안 경로당으로 사용되어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주다가 2016년 새로운 경로당이 마을에 지어지면서 비어 방치된다. 벌터문화마을은 2018년 유휴공간인 마을회관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경기도시민참여형마을정원사업을 통해 담장을 철거하고 마당에 정원을 조성하였고, 수원형타복공동체 공간지원사업으로 내부공간에 대한 일부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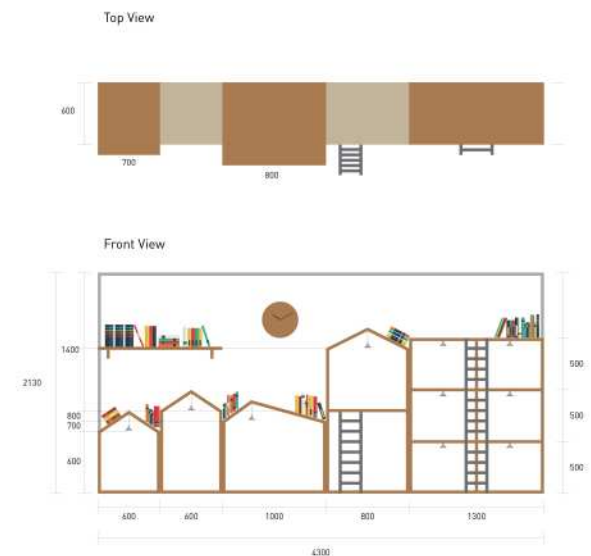
새롭게 단장한 마을회관은 벌터문화마을사업의 거점공간인 ‘커뮤니티하우스 문화마실’의 이름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앞으로 주민 동아리의 모임과 크고 작은 마을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것이다.

- **공사기간** : 2018년 6월 ~ 10월
- **공사내용** : 담장철거, 마당 정원조성, 옥상 난간 및 외부도장, 내부도장 및 바닥 데코타일 공사, 주방 이전 설치, 그림책 방 조성, 테이블 및 수납장 등 실내용 가구제작, 출입문 교체, 화장실 공사, 옥상계단 설치
- **공사재원** : 벌터문화마을, 경기도시민참여형마을정원사업, 수원형따복공동체지원사업

벌터마을 허브공간 인테리어 평면도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 이미지





공사전 & 공사중



공사완료

1만원 기부나무

벌터마을회관은 40여 년 전 마을 분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올리며 지으셨다고 한다. 새로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현재의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 공간을 만들고 관리운영하자는 생각으로 ‘1만원 기부나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자의 이름은 작은 나무조각에 새겨져 커다란 나무를 이루는 줄기의 일부가 된다. 기부금은 벌터문화마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활용될 계획이다.





마을기록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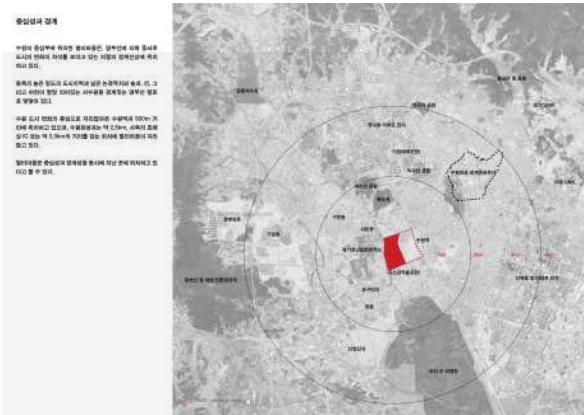
벌터문화마을은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재해석 하는 일에 많은 애정을 들여왔다. 2016년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도시분석’ 형태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것은 마을의 물리적 형태와 그것의 연유 등의 관련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때 마을역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기억을 증언 형태로 기록하기도 했다.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의 방식을 넓혀 나가기 위해 계간지로 마을잡지를 발간했고, 어르신들의 손글씨를 모아 달력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기억을 글과 그림, 구술을 받아 만든 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는 삶의 잔잔한 감동과 위트가 넘쳐난다. 사진가들이 일 년 동안 기록해 준 벌터마을 풍경을 모아 발간한 사진집 「벌터스럽다」는 벌터마을의 소소한 정취를 담았다. 벌터문화마을사업의 마지막인 2019년에는 마을동화책 「벌터에 고래가 산다」을 만들었다. ‘벌터에 고래가 산다’는 벌터의 자연환경과 역사에 동화적인 상상을 곁들인 이야기이다.

마을의 역사와 도시환경,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취재하고, 관찰한 기록물들은 현 시대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마을 아카이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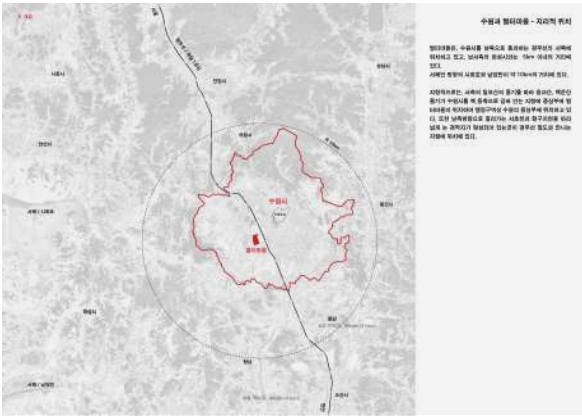
- 마을연구보고서 「벌터마을 100년」
- 벌터마을잡지 1호 ~ 10호
- 어르신들의 ‘손글씨달력’
- 마을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 마을사진집 「벌터스럽다」
- 그림동화책 「벌터에 고래가 산다」

벌터마을 100년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D.TRACE 에 의해 진행된 「벌터마을 100년」 은 벌터마을의 ‘장소성 및 물리적 환경 분석’을 통해 벌터마을의 형성과정, 역사적 흔적, 도시공간으로서의 특징을 분석하고 마을 안에서의 ‘소통의 방법과 환경’을 분석했다. 이 연구작업을 통해 벌터마을의 형성과정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고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마을이 어떤 영향을 받아 왔는지 또한 알 수 있었다. 마을의 형성과 유지는 그 마을만의 독자적인 방식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벌터마을 또한 수원이라는 도시의 역사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어 왔다. 그 변화의 과정을 알아가는 것은 마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마을의 잠재적 능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준다.



- **연구명**
벌터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환경 기초조사 및 연구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1월
- **보고서 발간** : 2017년 3월
- **연구수행기관** :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D.TRACE
- **연구참여진**
책임연구원 장수아(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대표)
보조연구원 조도희
구술 생애사 연구 진나래, 우수현
상권 조사 분석 김예슬, 노소영, 신지현, 전형민



연구보고서 목차

I. 개요

1. 수원과 벌터마을-지리적 위치
2. 중심성과 경계
3. 벌터마을 주변 환경
4. 벌터마을 주변 도시구조
5. 벌터마을 개요 및 행정구분 현황
6. 벌터마을 지명 및 도로명 현황

II. 벌터마을의 장소성 및 물리적 환경 분석

1. 벌터마을의 형성과정
 - 1) 수원 그리고 벌터마을의 역사
 - 2) 수원의 도시성장과 벌터마을
 - 3) 1906. 서둔동 일대 권업 모범장 개장
 - 4) 1917. 벌터마을-논 경작지와 잠업 시험장
 - 5) 1917-1966년. 잠업 시험장과 선경직물 공장
 - 6) 1966-1974년. 금강스레트 공장. 연탄공장
 - 7) 1974-1981년. 소규모 집합주거-연립주택
 - 8) 1981-1987년. 벽돌 주택의 등장
 - 9) 1987-1995년. 벌터마을의 번성기
 - 10) 1995-2000년. 종교시설과 아파트(평동) 등장
 - 11) 2000-2008. 외곽 순환도로 개통
 - 12) 2008-2016. 롯데 쇼핑몰-상업지역

2. 벌터마을의 역사적 흔적

- 1) 논두렁
- 2) 길
- 3) 건축물
- 4) 물길과 녹지

3. 벌터마을의 도시공간의 특징

- 1) 지형의 현황
- 2) 길
- 3) 필지
- 4) 건축물
- 5) 생태공간

4. 벌터마을의 풍경

- 1) 벌터마을의 파노라마 입면과 스카이라인
- 2) 골목길 풍경-시퀀스 및 피토레스크
- 3) 벌터마을 골목길 야간경관

5. Iconography & typology & color

- 1) 건축물 입면
- 2) 담장
- 3) 대문
- 4) 쪽창
- 5) 명패
- 6) 옥외 광고물
- 7) 도로 바닥 패턴 및 맨홀
- 8) 기타
- 9) 재료와 패턴
- 10) 문양. 조각. 디테일. 장식
- 11) 타이포 그래피
- 12) color

III. 소통의 방법 및 환경

1. 도로 및 보행 환경 현황
2. 협소로와 막다른 골목길에서의 소통
3. 보행권 저해 요소
4. 보행환경-안정성
5. 벌터마을의 소음현황
6. 소통 그리고 마주침의 결절지점
7. 벌터마을의 중심권 현재 그리고 미래

IV. 삶. 생활방식. 문화

1. 기억과 장소성/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2. 벌터마을 골목상권 기초조사
(상권조사 보고서로 별도 발행)
3. 벌터마을 주민 생애사 구술 수집
(구술 생애사 보고서로 별도 발행)

V. 결론 및 시사점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수아 소장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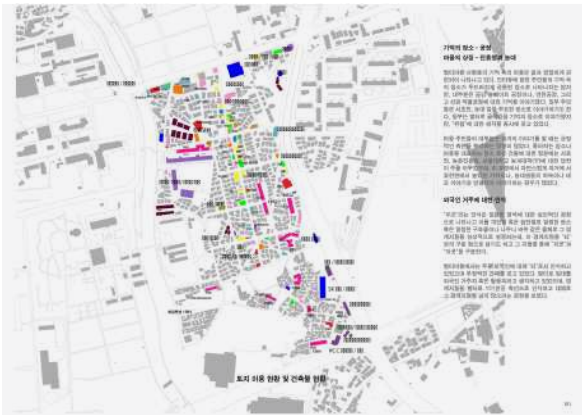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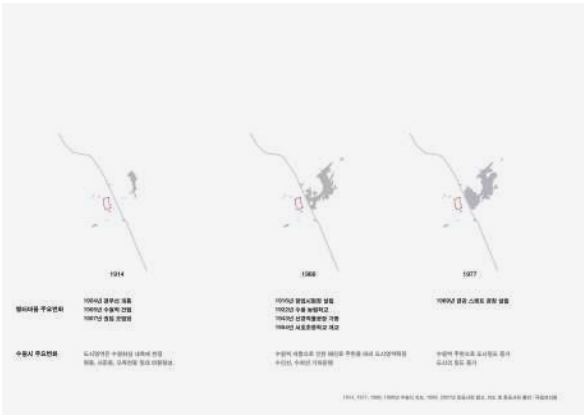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이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도시화 영역에 편입되고, 1980~90년대의 새로운 유형의 집합주거들의 등장과 더불어 도시는 수평적 확장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수평적 확장은 중심상권의 이동과 산업시설지역이 도심으로 편입되면서 구도심의 쇠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2000년대부터 진행된 도시 재개발이란 이름의 도시 정책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역이나 산업시설지역을 삭제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원뿐만 아니라, 근대시기를 거쳐 온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도심의 쇠퇴와 개발로 인해 마치 풍선호과나 빨대효과처럼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 기존의 구도심 지역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모순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시의 현실이다. 벌터마을은 이러한 도시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래된 도시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 분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그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분석은 물리적으로 구축된 건축물들과 필지들의 구성 그리고 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축된 것들은 역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축물 또는 골목길은 단순한 돌과 콘크리트나 벽돌들의 덩어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한 가족이 품었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다. 이웃들이 만나고 행해졌던 다양한 일상과 소소한 삶의 기억체이다. 오래된 주택 하나에서는 그 가족의 삶의 모습이 보이고, 골목에서는 이웃들 간의 소소한 일상이 보이고, 마을에서는 공동체의 이야기와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스토리들이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간 속에서 공간에 쌓여갈 때 그것은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

오래된 도시공간일수록 이러한 시간속의 정체성의 깊이가 깊게 담겨있다. 도시공간분석의 일차적인 목적은 쌓여 축적된 정체성의 깊이를 가능하여 공간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그것은 쌓여진 깊이만큼의 잠재력과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벌터마을 천변을 따라 펼쳐진 벌판에는 논두렁의 이야기부터 선경직물공장과 마을을 비롯한 80년대 주택개량사업에 이르는 흔적이 그대로 쌓여있다. 벌터마을은 권력을 소비하고 선전하는 기념물이 아닌 땅과 공장에서 땀을 흘려가며 노동을 통해 소소하고 일상적인 그러나 치열한 삶을 일궈온 사람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백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켜켜이 담겨온 흔적들은 이제 철거와 개발이라는 힘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리서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간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로 귀결된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한 기억들은 이렇게 기록되고 새로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연구작업을 진행하며 아쉬운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오래된 공간들에 대한 현재의 요구를 바탕으로 미래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세워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될 때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벌터마을에 대한 도시 리서치 작업은 ‘문화마을’ 사업을 통해 계속 리뷰 되고 재해석 될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잡지

벌터는 어떤 마을일까. 마을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집의 모양은 왜 저렇게 생겼고, 대문 옆과 담장, 옥상에 늘어선 작은 상자 텃밭을 가꾸는 이는 누구일까. 벌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그들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 마을이 궁금했고, 벌터에 대해 알고 싶었다. 벌터스러움을 찾고 싶었다.

마을잡지 「벌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마을을 새롭게 발견하고, 마을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사건,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로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엮어 꾸러미를 만들어 갔다.

마을잡지 「벌터」는 계절별로 마을의 ‘역사, 집, 소리, 겨울나기, 봄, 여름, 다시 벌터로’라는 기획 주제를 갖고 7호를 발행했다. 그 이후 마을을 담아낼 새로운 형식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편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을 인터뷰하다’라는 컨셉으로 개편해 3호를 추가로 발행했다.

○ 마을잡지 「벌터」 1호~7호

- 편집장: 노영란
- 기획, 글: 송혜숙, 원선옥, 조성현
- 외부필진: 구하나, 심정아, 백혜숙
- 기획진행: 한문희, 박성희, 김윤영
- 디자인: 1호 40,000km / 2호 김현아 / 3호~7호 장정은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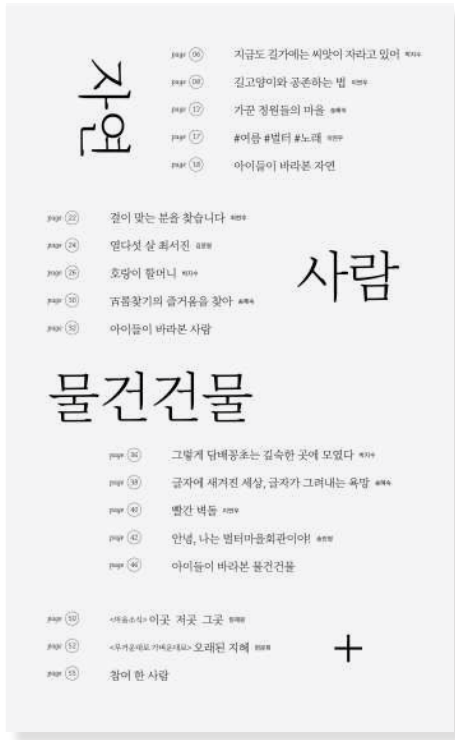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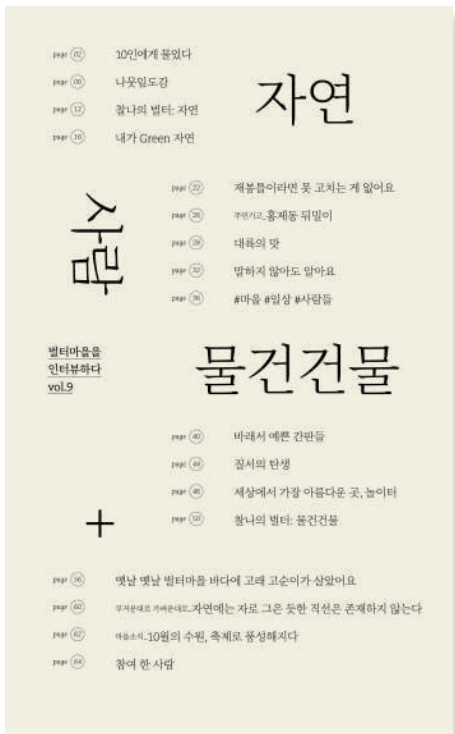
2



7



⑧



⑨

○ 벌터마을잡지 8호~10호 ‘벌터마을을 인터뷰하다’

- 기획, 글: 송혜숙, 박지수, 이연우, 김윤영, 임재원, 한문희
- 주민참여: 송진영, 이은경, 심평옥, 최현주, 임동렬, 서호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 서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 교정교열: 송혜숙
- 편집기획: 이연우
- 디자인: 장정은



⑩

벌터마을 잡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결하다

마을잡지 『벌터』 1호~7호 편집장 노영란

수원역에서 서편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 수원역과 옛 서울농대(지금의 경기상상캠퍼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동네, 마을잡지가 나오기 전까지 벌터마을은 지리적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게 더 유의미했다. 벌터마을은 오래 산 주민들에게 일컬어지는 마을이름이었다.

2016년 가을, 주민들과 문화활동가들, 외부 편집기획위원들이 모였다. 마을잡지를 내보자는 거였다. 사람의 생애가 있는 마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수원시사』에 단 몇 줄로 소개된 글로 벌터마을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마을의 지난 시간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기로 했다. 우리들은 마을잡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마을잡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눴다.

벌터마을 잡지가 처음 나온 것은 2017년 봄이었다. ‘벌터’라는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마을 이야기를 담았다. 마을 잡지는 두 단계로 발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2017~2018년까지 7권이 발행된 시점으로, 역사, 건축양식, 소리, 사람 등 매 호마다 주제를 정해 문헌조사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기록했다. 마을 사람과 마을 가게를 고정지면으로 두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행된 3권으로, 자연, 사람, 물건건물을 주제로 하여 좀 더 세밀하게 벌터마을을 담았다. 벌터 주민들이 지면을 채워가는 비중이 높아졌다.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마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다가 도시인의 생활반경이 의외로 넓지 않다. 내가 사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녹록치 않는 게 요즘 도시인들의 삶이다.

벌터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면적이 작아서, 잡지를 낼 때마다 몇 바퀴씩 마을을 둘러보았다. 낮은 담장을 따라

골목에 기대어 사는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 동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역사였다. 이야기를 채록하면서 낡고 허름하고 오래된 것들이 품고 있는 가치들을 새롭게 읽어냈다. 한편으로는 늘 가까이 있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동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했다. 골목에 피어난 꽃 한 송이도, 여름 퇴약벌을 피해 나무그늘 아래 누워 있는 길고양이도, 바지런한 주민들의 손끝에서 철마다 자라는 텃밭 작물들도, 도심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벌터마을의 풍경도 놓치지 않고 지면에 담았다. 무심코 스쳐가는 마을의 소소한 것들을 기록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의 이야기와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네 이야기도 지면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마을 잡지가 나오면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연결되어 갔다. 마을의 역사, 빈 공간 등 마을의 풍경, 마을 사람들, 마을 길 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공유되면서,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알아갔다. 동시에 주민들의 시선이 넓어졌다. 나의 공간에서 이웃으로, 마을로 시선이 확장되면서 마을에 애정이 생기고, 내 일상이 좀 더 풍성해졌다. 벌터마을 잡지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유무형의 요소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소통매개였다.

10권으로 마을잡지를 마감하면서, 첫 호에서 다뤘던 ‘벌터스럽다’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너르고 평평한 땅을 일컫는 별판에서 유래된 ‘벌터’라는 마을 이름을 주민들은 ‘정감 있는’ 벌터마을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다. 정이 있는 마을, 벌터마을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이층 양옥집들 외곽으로 원룸단지가 들어서고, 마을 구성원들도 바뀌고 있다. 반면에 마을 안에 공동체문화공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 재미난 일들을 벌이고 있다. 마을의 시간이 또 다른 결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벌터마을이 품고 있는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벌터의 삶, 정이 있는 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주민들의 손으로 촘촘하게 기록되어 가길 바란다.

손글씨 달력

벌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무던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주신 손 글씨와 마을을 거닐며 마을의 소소한 일상 풍경을 스케치 해준 전지작가의 그림으로 2017년 벌터마을 손글씨달력을 만들었다. 뽀뽀뽀뽀 투박한 글씨지만, 달력 하단의 글씨를 써주신 분의 짙막한 인생 이야기를 읽다보면 투박한 글씨마저 곱고 정겹다.

아프리카에 있는 손자손녀 만나러 갈 때 보여주려고 풍선아트와 구연동화를 배우셨다는 아버님과 젊은 시절 선경직물에서 ‘오바로크(미싱) 하다가 다 늙었다’는 어머니, 경로당에 와서 ‘같이 놀고 밥 먹는게 너무 좋다’는 분들의 인생이 손글씨와 함께 느껴진다.

○ 벌터문화마을 2017 손글씨 달력

- 손 글씨 참여 어르신
표지: 홍종각
월별: 오양례, 방명일, 김연화, 허복순, 김옥순, 박인순, 강정희, 안영분, 김정자, 박응숙, 유영순, 안화자
- 마을풍경 드로잉: 전지 작가
- 손글씨 작업 및 이야기 기록: 이정훈, 하채린, 송혜숙
- 진행: 고미랑
- 디자인: 파인트그래픽스



어머니~ 시 한편 같이 쓰실래요?
시? 시를 왜 써.
인생이 다 시인데 뭐~

‘인생이 다 시지, 뭐’는 벌터마을학교에서 진행한 <인생쓰기 수업 ‘그 인생 참 달다’>를 통해 제작된 마을시집이다.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된 인생쓰기 수업은 벌터마을 어르신들의 투박하지만 생생한 ‘삶의 언어’를 길어 올리기 위한 작업이었다. 인생에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환희는 한 발을 떼는 순간 ‘시’가 된다. 벌터경로당 어르신들의 인생도 모두가 시가 되어 한 권에 담겼다. 재치 있고 엉뚱한, 때론 가슴 저린 ‘인생’을 들어보자.

○ 인생이 다 시지, 뭐

- 발행: 2008년 1월
- 시인: 강정희, 권영희, 기수분, 김명순, 김순분, 김순자, 김연화, 김영자, 김영자, 김옥녀, 김옥순, 김정자, 김홍섭, 마현구, 문갑순, 민덕기, 박분눔, 박옥순, 박응숙, 박인순, 박정숙, 박창숙, 배복금, 안명숙, 안영분, 유복순, 유영순, 이순자, 정순자, 최규심, 한춘자, 허복순
- 그림: 벌터경로당 박인순, 박정숙
- 인생쓰기 수업: 송혜숙, 이정훈
- 진행: 박성희
- 디자인: 장정은

“생생한 언어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열심히 살아왔을 뿐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거나 글로 쓴 적이 없는 노인들이 건져 올린 입말의 시들이 여기에 있다.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고무줄이 땅에 살짝 내려올 때, 얼른 뛰었지 / 그렇게 고무줄 넘듯이 시간을 넘어왔어”(정순자, 「옛날」)에서 보듯 직선의 균질한 시간이 아니라 그때그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고무줄 시간인 것이다. 어디 나가려면 진통제, 혈압약 등을 좀 먹어야 하고(김순자, 「외출할 때면」) 청춘이 흘러간 자리엔 주름만 늘지만(김홍섭, 「내 노래」)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지나온 시간을 다시 살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그리워하는 생생한 언어들이 이 시집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되새김의 시간을 “길면 나빠 / 사연이 나와 / 길면 나빠 / 전설이 나오잖아”(한춘자, 「시」)라고 표현하는 재치라니! 온몸으로 살아낸 시간의 흔적들, 내 인생의 첫 시집을 축하드린다.

박성희 (시인)



마을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출간 기념회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시’가 되어 나오다”
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엮어낸 시집 출간을 기념하여
벌터경로당에서 조출한 출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 일시: 2018년 2월 9일(금) 오후2시
- 장소: 벌터경로당
- 참석: 벌터경로당 어르신들, 벌터마을주민들, 수원시 문
화정책팀,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서둔동사무소,





인생이 다 시지, 뭐

인생쓰기 수업 송혜숙

노인들의 얼굴은 엇비슷했다. 표정이나 주름이나 웃음까지 비슷했다. 그래서 몇 번을 만나도 이름을 외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별터 경로당 인생쓰기 수업 ‘그 인생 참 달다’를 2017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했다. 처음 의도는 어르신들의 생각을 손글씨로 담아 ‘정겨운’ 시집을 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업이 늘어날수록 걱정이 커졌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글을 쓰실 줄 몰랐다. 글을 쓰실 줄 아는 분들도 부끄러워서 자신의 생각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방향을 바꿨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가면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잡지에서 오리기도 했다. 약봉지를 구해 자신의 병명과 약을 적어놓는 시간도 가졌다.

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르신은 이미 떨리는 음성이었다. 두 눈시울에는 벌써 진달래꽃물이 든 것처럼 두둑두둑 붉어지고 있었다. 무릎 한쪽을 세우고 겨우 크레파스를 손에 쥐었지만 눈꺼풀이 가물거리는 건지, 손가락에 힘이 빠진 건지 자꾸 크레파스를 놓쳤다. 창밖에는 꽃가루가 희뚝거리는 봄이었다.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어.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했지. 우리 때는 여자가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해. 글도 겨우 깨쳤어. 공부 많이 하면 양공주 된다고 했어.’

마음보다 종주먹이 앞서는 모양이었다.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오래전에 지나온 시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동생들 돌보느라고, 학교를 못 갔어. 동생들이 자꾸, 내 이름을 불렀어. 밥줘 연화야 연화야’

연화할머니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동추야 날이 밝아 오동동이야 오동동 오동동 오동동 오동동 타령.....

소파에서 누워 있던 순이 할머니도 비척비척 일어나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나를 때렸어. 죽기 전에 이거 실 꾸러미 감아놓고 갔어.’

당시의 안타까움이 밀려오는지, 속개나 태우던 남편 이야기에 금세 낯빛이 어두워졌다. 굳은 돌부처처럼 앉아 염주알처럼 눈동자만 굴리던 할머니들이 한입 가득 괴었던 이야기들을 꺼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양지 바른 마당에 앉아 텃밭에서 열무를 속아 보리밥에 고추장 한 숟갈을 넣고 쓱쓱 비비면 그게 시지 뭐. 시가 뭐 따로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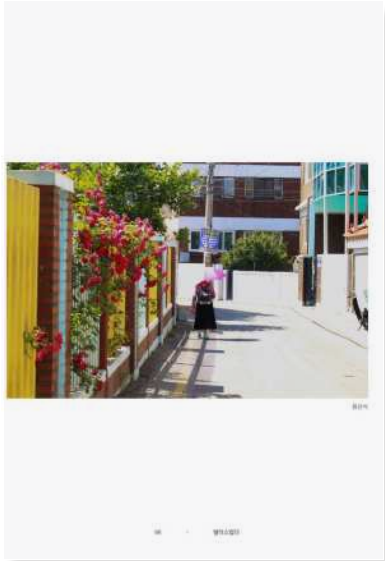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에서 묻어나는 재미난 말들의 향연이 벌어졌다. 점심상을 물리고 저마다 방석을 하나씩 깔고 앉아 창가에 부딪히는 봄 햇살을 가져다 늘편히 이야기를 풀어놓던 분들. 나는 그분들의 말을 녹취했고, 수업이 끝나면 글로 옮기면서, 행간을 나눴다. 그랬더니 시가 되었다.

벌터스럽다

벌터의 하늘, 땅, 집, 골목, 대문, 나무와 꽃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사진마음터 동네프로젝트팀은 벌터의 이런 소소한 일상의 모습들의 사계절을 기록해 주었다. 송혜숙은 “벌터의 풀을 찍은 사진에서도 야트막한 벽을 찍은 사진에서도 말없는 서사가 보였다. 시간의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잘 보이지 않던, 숨어 있던 벌터마을의 만 개의 눈이 보였다.”라고 표현했다. 그렇다. 벌터에는 만개의 눈이 있고, 우리가 담아낸 것은 그 중 몇 개의 눈에 불과하다.

마을사진집 「벌터스럽다」

- 발행: 2018년 11월
- 사진: 박김형준, [사진마음터 동네프로젝트팀] 김미영, 김지혜, 박혜경, 손은영, 송유정, 양혜영, 원선식, 유희숙, 이영희, 임종순, 임현철, 장미애, 최병철, 한윤흥
- 글: 송혜숙
- 진행: 박성희
- 디자인: 장정은
- 목차
 - 벌터는 푸르다
 - 벌터는 박물관이다
 - 벌터는 따뜻하다
 - 벌터는 작다
 - 벌터는 놀이터다
 - 벌터는 그림엽서다
 - 1000자, 벌터마을
 - 그들이 사랑한 벌터마을 <사진작가들의 내면의 풍경>



벌터에 고래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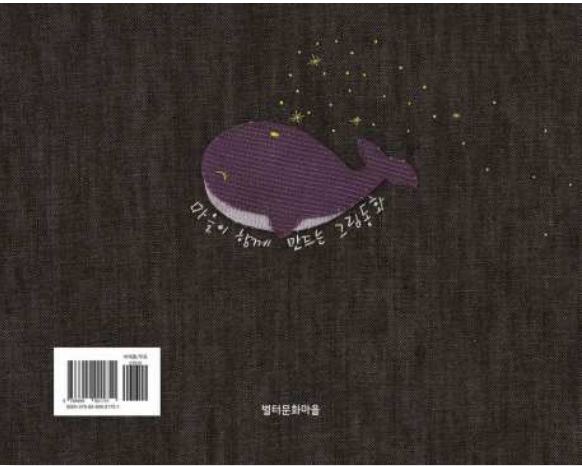
옛날에는 현재의 화성시 내륙까지 바닷물이 닿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해 바닷물이 범람하여 벌터마을 옆 고색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고색리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떠나야 했단다. 얼마 후 바닷물이 빠지고 마을도 어느 정도 옛 모습을 되찾자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옛 고향(古)을 다시 찾아와(索) 살았다고 하여 고색(古索)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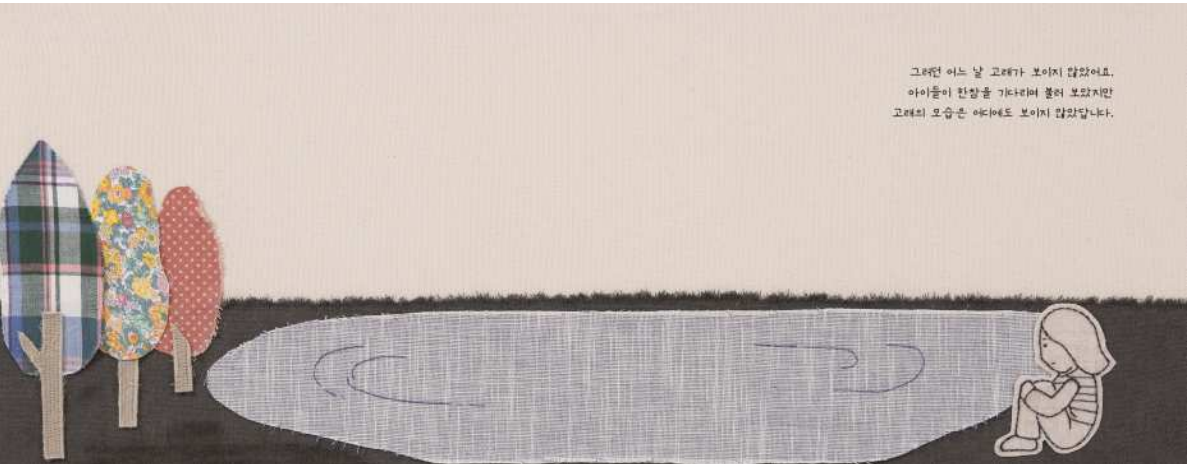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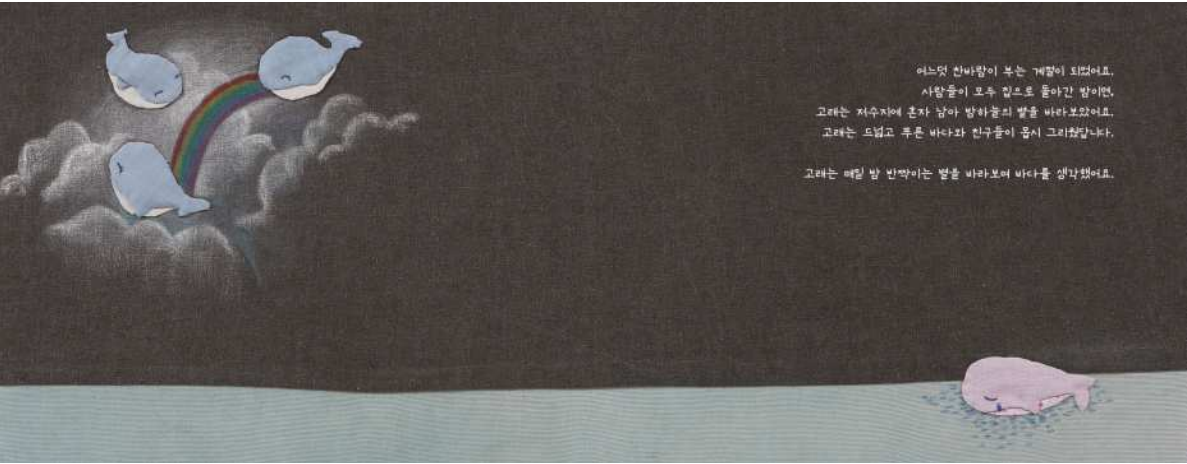
마을동화책 「벌터에 고래가 산다」는 이런 상상 속에서 시작되었다. 마을 옆을 흐르는 서호천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시 그때 바다에 사는 고래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서호천 위에 있는 서호저수지 한 가운데는 마치 고래등 같은 작은 섬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고래가 살았다는 증표는 아닐까.

옛날에 서호천을 따라 올라왔던 고래는 지금도 벌터마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는 않을까.

○ 마을동화 「벌터에 고래가 산다」

- **발행:** 2019년 12월
- **함께 만든 사람들:** 벌터마을주민협의모임 (김지현, 송진영, 이은경, 최현주, 박연주, 신평옥) 마실나온 실타래(코바늘 동아리), Sewing_Bee(재봉틀 동아리), 프로젝트 머리에 꽃 한문희, 김윤영, 임재원
- **글:** 한문희
- **그림총괄:** 김지현
- **그림:** 송진영, 이은경, 박연주, 신평옥, 김윤영, 임재원
- **진행:** 김윤영
- **사진:** 스튜디오 독립
- **디자인:** (주)더페이퍼







마을과 사람들

마을은 하나의 작은 우주다. 집이 있고 사람들이 산다. 고양이와 강아지와 같이 사람들이 벗 하는 동물들이 있고, 어디에서 날아와 자랐는지도 모를 풀과 꽃들이 있다. 흙이 드러난 마당이 있는 집 담장 안에는 일부러 정성들여 키우는 감과 대추, 모과나무 같은 과실수가 자란다. 생명과 그 생명들의 움직임과 교감이 있는 것이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 곧 마을이니까.

벌터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간다.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하며 농부였고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마을은 변하여 서로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 마을에 살지만 우리에게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마을이라는 하나의 작은 우주 안에 우리는 분명 공존한다.

벌터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마을주인과 옆마을 이웃, 그리고 마을학교 강사분들까지. 주민협의체(주민협의모임)는 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훌륭한 주민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마을학교를 통해 또는 자발적인 욕구에 의해 만들어진 동아리들은 문화마을 사업의 결실이자 동행자였다. 마을학교에서는 마을의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서호초등학교와의 마을연계 교육협력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적 관계에 대한 시사점들을 던져 주었다.

<마을과 사람들>편에는 문화마을사업을 진행하며 좋은 협력을 이루어낸 마을단체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개, 서호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의 의미, 마을학교 강사 중 오랜 기간 수업을 진행한 분들의 후기 글을 모았다. 또한 벌터문화마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문화마실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벌터문화마실’ 동아리 모임에 대해 소개하며 자발적 활동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벌터문화마을 주민협의모임

벌터문화마을은 문화마을사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마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가며,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 전문가그룹과 행정지원을 포함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2018년까지 운영하였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문화마실 공간을 오픈하고 문화마을사업이 연장된 2019년에는 문화마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협의모임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함께 준비하였다.

- 벌터문화마을 1기 주민협의체
문화마을사업의 참여자인 동시에 주체로서 마을의제를 설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마을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의 구성체, 문화마을사업 주민 대표기구의 성격
- 주민협의체: 최찬식(고문), 송현재(회장), 윤여연(부회장), 백현숙(간사), 홍종각, 이완식, 김옥임, 서명원, 박정분
- 전문가그룹
프로젝트 머리에 꽃(사업운영자), 경기문화재단
- 행정지원: 서둔동행정복지센터, 수원시
- 운영기간: 2016년 11월 ~ 2018년 12월

- 벌터문화마을 2기 주민협의모임
문화마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마을사업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추진을 위해 동아리 대표자를 중심으로 주민협의모임 구성

- 주민협의모임:
송진영, 이은경, 최현주, 김지현, 박연주, 신평옥
- 전문가그룹: 프로젝트 머리에 꽃(사업운영자)
- 운영기간: 2019년 4월 ~ 2019년 12월



벌터온(ON)

‘벌터어린이공원 스위치를 켜다’

송진영

우리는 마을을 바라볼 때 각자의 생각과 바람이 있었고 바꾸고 싶다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그렇게 속에서만 맴돌던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벌터문화마실’이 마련해주었다.

문화마실의 초대로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마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만한 공간이 없음에 안타까워했다. 우선 서둔동에 유일한 놀이터인 ‘벌터어린이공원’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싶었다. 그때까지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와 추억거리를 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동네아줌마들이 모여서 벌터온을 만들었다.

사실 누군가 만들어준 공간과 프로그램에 익숙한 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낯선 것이었다. 우리는 어설퍼다. 그래도 내가 살고 내 아이가 살아갈 마을을 내 손으로 바꿔보고자 열심이었다. 열정과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다독이고 응원하며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려 노력했다.

사회가 변화면서 ‘마을’이라는 개념도 희미해졌다. 하지만 요즘 들어 ‘공동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왜 중요해 졌을까? 공동체성이 약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은 주민이 가장 잘 알기에 주민들이 직접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이렇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외로움과 친구가 되어 산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인간본연의 고독이 아닌 사회적인 고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 건강한 마을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벌터온은 우리 마을이 그런 마을이 되길 원한다.

나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만한 인물이 못된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마을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마을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을이다. 나의 아이가, 그리고 이웃의 아이가 건강하게 마을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신이 자란 마을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유년시절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을 내에서 수익성이 있는 일도 해보고 싶다.

‘모두 잘 지내보자. 모두를 존중하자. 작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함께 나누자. 그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따뜻함을 안고 가자.’ 나의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존중하고 싶다. 좋은 마을을 만드는 길에 한 발 더 내딛자. 그렇게 노력하다보면 다른 이들도 부러워하는 마을이 되어있지 않을까. 벌터온이 벌터문화마실에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시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 마을동아리

벌터문화마실에는 다섯 개의 동아리가 활동 해왔다. 독서, 코바느질, 일어 · 영어, 기타연주, 재봉 동아리가 그들이다. 여기에 문화마을사업이 끝나며 자발적 ‘문화마실 동아리 모임’이 결성되면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베이킹, 천연제품, 가죽, 색연필 모임까지 합치면 아홉 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독서, 코바느질, 일어 · 영어, 기타연주, 재봉 동아리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아리를 이끌어온 분들의 소회를 모았다.

- 동아리 활동 시간
- 독서 동아리 <월작성>
매주 월요일 오후4시30분 ~ 6시
- 일어 · 영어동아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 코바늘동아리 <마실나온 실타래>
매주 수요일 오전10 ~ 12시
- 기타동아리 <딩기당당>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2시
- 재봉동아리 <Sewing_Bee>
매주 목요일,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금작성에 이어 월작성 «독서동아리»

최현주

동아리 시간에 물어봤다.
“독서의 힘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진이(초4)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해서 뇌가 발달했어요.” / 유진이(초2) “독서의 힘은 긍정,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 주진이(중1) “사람의 생각을 넓혀주고 견문을 넓혀주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 / 서진이(중2) “나를 계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 은순선생님 “내가 해보지 못한 남의 경험이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간접경험이요” / 진영선생님 “나는 독서의 힘을, 마음과 머리를 병들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 현주선생님 “세대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한적인 만남과 소통으로 비슷한 생각 나눔이 대부분인데, 다양한 나눔을 들으면서 시야 폭이 넓어지는 것이 독서의 힘인 것 같아요.”

2018년11월16일 ‘금요일에 작은 성공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독서모임을 시작했다. 같은 책을 읽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책이나 영상을 보고 나누고, 실천해보며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금작성 시즌 1은 서진이(중1), 요한이(고1), 진영선생님과 나, 이렇게 넷이서 시작했다. 12번의 모임으로 각자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설정하고 작은 성과들을 보면서 끝났다. 예를 들면 요한이는 게임시간을 줄여보고자, 책을 통해서 얻은 팁들을 통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게임시간을 줄였다. 시즌2는 월요일로 시간을 옮기면서 이름하여 ‘월작성’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2학년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하게 되다 보니, 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읽고 그 자리에서 나눔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분 동안 집중해서 읽고 그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그리고 10분간의 휴식.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놀이방으로 빠르게 사라진다. 다시 20분간 집중 독서 후 헤어진다.

단순한 방식이었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손에 잡지 않을 책들이 읽어졌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양정무교수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2’를 읽고 ‘그리스 보물展’을 가보기로 계획하고 그리스 초기 역사와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도슨트 해설시간이 사람들로 가득할 줄은 몰랐기에, 겨우 겨우 따라 다니며 들었다. 같이 갔던 수현이(10세)의 소감이 다.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봤었는데. 전시에서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번개를 다룰 수 있는 제우스신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좋아하는데 큰 조각상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조각이 크니까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냥코대전쟁이라는 게임에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게임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의 실사 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다음에도 전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관람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요즘은 가을 시즌3이 진행되어 가면서, ‘인공지능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에 관심이 쏠려있다. 지금껏 함께 읽은 책은 딱 한권. 막내 수준에 맞춰 보자는 의견에 따라, ‘루와 라라의 초코렛 데이’를 같이 읽어봤다. 유진이(초2)는 주로 그림책과 동화책, 예진이(초4)는 네버랜드 클래식책, 주진이(중1)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책과 에이트였고, 서진이(중2)는 공부방법에 관련된 책, 수현이(초3)는 기차에 관한 책을, 진영선생님은 가드닝에 관해서, 은순선생님은 육일약국갑시다를 시작으로 심리학 등 다양한 책을, 나는 주로 독서, 환경, 외국어에 관련된 책을 읽어왔다.

이번 겨울 방학엔 뭘 또 해볼까?

«영어,일본어 동아리»

이은경

언어를 배운다는 건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길을 여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혼자 하기에는 지쳐서 그만두게 되기 쉽다.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함께 언어를 학습하자는 의미에서 언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다. 말은 말 그대로 입 밖으로 내 뱉으면서 두뇌에서 보다 빨리 인식하고 다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 동아리 활동은 교재에 나온 예제문을 역할을 나누어 연습해보고, 동아리장이 질문하면 답변해보고, 끊임없이 입 밖으로 언어를 내보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 자꾸 쓰다보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언어가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언어, 즉 모국어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나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있다. 즉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언어배우기는 훨씬 재미있어진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으로 목표달성이 되는 셈이다. 틀려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그것을 통해 각자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이루고픈 바를 달성한다면 금상첨화다. 아이와 일본여행, 일본어로 설명된 코바늘 책 읽기, 학습을 통해 아이와 소통하기 등 각자 목표하는 바는 다르지만, 새로운 언어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본 과자 봉지를 각자 골라서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를 배우다보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과자 봉지 하나에도 일본사람들이 과자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과자 속에 들어간 내용물을 보고 많이 나는 과일 같은 것들도 알 수 있었다. 영어를 배울 때는 그림책을 활용하는데, 그림책속의 대화를 통해 영어권 국가의 학교문화라던가 극장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까.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별터문화마 처럼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공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마실나온 실타래 «코바느질 동아리»

박연주

2018년 봄, 별터문화마실에서 10회 코바늘 손뜨개 강좌가 열렸어요. 뜨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냉큼 신청했죠. 바늘이 실 사이를 몇 번 오가면 실이 엮어지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수세미라도 뜨서 쓰면 좋겠어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수업은 결코 만만치는 않았어요. 가방도 뜨고 티코스터도 뜨고 난 후에야 떠본 수세미는 수업 2시간을 오롯이 들여서야 겨우 한 개 완성할 수 있었어요. 눈 빠지고 어깨 굳고 어색한 손놀림으로 만든 그 첫 수세미는 제 단팍에서 선물했어요. 이게이게 그냥 수세미가 아니라면서(웃음).

블랭크, 미니스카프, 가방 등을 만들며 10번의 수업이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 모였어요. 그렇게 마실에서의 첫 동아리가 만들어졌죠. 이름도 만들었는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운다는 뜻의 ‘휘뚜루 마뚜루’가 우리의 첫 이름이에요. 우리는 아직 정확하지도 멋지지도 않았지만 계속 모여 무언가를 만들어 갔어요. 서투르지만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음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벼룩시장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작품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그저 손으로 하는 것이 좋아서 한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쓰인다는 것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미처 몰랐던 한 뼀의 수고로움을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직접 손으로 하는 작업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재료비만도 기성품을 훨씬 웃도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만드는 즐거움을 알아요. 그리고 작품에 마음을 담죠. 만드는 동안 이것을 쓸 사람을 생각해요. 동아리모임을 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유용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구에게까지도(웃음).

그저 예쁜 것만 만들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와 지구까지 생각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딩기당당 «기타동아리»

송진영

나의 로망과 그들의 로망이 같음을 느끼고 함께 연주하며 누구에게나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줄로 만들어지는 짝 차오르는 풍부함과 내 손으로 튕겨서 만들어내는 6줄의 감성...

저 개인적으로는 10대 시절에 Rock, L.A Metal에 푹 빠졌었죠. 그래서 일렉기타를 꼭 잘 쳐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김현식, 김광석 같은 감성을 자극하면서도 진중한 음악이 있었습니다. 늘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고, 결혼과 육아, 일상에 쫓겨 시간을 낼 수 없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었죠.

그러다 작년에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통기타를 샀는데, 마침 문화마실에서 동아리지원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는 마을주민 박연주씨, 오윤희씨, 김선례씨와 함께 딩기당당을 만들었어요. 멋지고 열정이 가득하셨던 선생님을 만나서 코드를 배우며 주법을 연주해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설렘 가득이었어요.

우리들의 일상엔 즐거움과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들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많죠. 그런 시간을 기타가 들어와서 채워주었고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기타의 소리가 점점 멜로디가 되어가는 그 시간이 큰 위로가 되었죠.

손가락 끝에 굳은살이 베어 갈 때 쯤 별터마을 가을축제에 수줍게 등장하여 3곡이나 연주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설퍼겠지만 딩기당당회원들에게는 정말 벅찬 일이었죠. 저야 물론 기타동아리를 만들자고 시작했던 사람인 만큼 열정이 가득했지만 그 열정을 다른 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회원들이 먼저 저녁이나 아침 시간이나 추가 연습도 제안하시고 서로 모니터링도 해주는 열정을 보여주셨죠. 왕초보였던 우리들만으로는 힘들어서 재능 있는 10대 소년과 공연을 함께 했어요.

나의 로망과 그들의 로망이 같음을 느끼고 함께 연주하며 기뻐하고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번 뭉클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6개의 현을 잘 누르는 것만이 아닌, 제대로 연주하고 싶어요. 그 분위기에 맞는 주법은 어떻게 하는지도 욕심이 나고, 딩기당당끼리의 하모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욕심도 나요. 즐거운 욕심이고 꼭 해내고픈 욕심이죠. 우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언젠가 마을에서 하는 큰 축제에 당당하게 올라가 노래하며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아들 녀석과 같이 똥땅거리며 함께 연주하고도 싶고요.

우리처럼 기타에 대한 동경이 있는 다른 마을 분들과도 만나 앞으로 같이 하고 싶네요. 지금의 딩기당당 식구들과 꼭 ~ 함께 딩기당당거리는 기타소리를 예쁘게 내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의 반짝거리며 숨어있던 방문을 뚝뚝 열어준 문화마실에게 정말 고마워요.



별터문화마을
재봉틀동아리



기타동아리

Sewing_Bee «재봉틀동아리»

김지현

#동아리소개

문화마실에 코바늘 동아리 소모임이 생겨나고, 별터맘들의 교류가 잦아지며 자연스레 재봉틀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손으로 꼼지락 거리며 만들기를 좋아하는 맘들의 모임이기에 이미 집에서 취미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재봉틀은 있지만 좀 더 배워 활용을 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 모여 동아리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게 2019년 3월 별터의 재봉틀 동아리 소모임이 시작이 되었다.

시작은 한 두 분의 제안이었지만, 동아리가 시작되자 평소 관심 있었던 마을 주민들도 소식을 듣고 참여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동아리가 되어갔다.

#의미

재봉틀을 알아가고 원단을 알아가고 옷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며 별터 사람들은 서로에게도 마음을 열어갔다. 서로의 작업을 보며 배우기도 하고, 같이 기뻐하고, 칭찬과 격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 벌 한 벌 완성 되어 가는 옷, 그 옷을 입어줄 주인공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내어 온 정성을 들여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배운 것 을 익히고, 아는 것 을 나누는 것 새로운 것을 창작한다는 것은 삶의 활력이었고, 주부들에 자존감회복의 큰 도움이 되었다.

#꿈꾸다

재봉틀 동아리의 최대 장점은 기능의 활용이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의 분야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일을 꾸며 볼까한다. 아직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지만 그 수다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될지 모를 일이다.



재봉틀 동아리



농촌 동아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워갑니다

서호초 교감 윤명숙

우리 벌터마을은 한 때 활기찬 마을이었지만, 공군비행장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굉음(90데시벨)과 제한적 개발로 인구가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변화 없이 과거의 모습을 유지한 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젊은 층이 떠나고 인구가 줄어든 조용한 마을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마실’이 문을 열었다. 문화마실의 관계지향적 프로그램으로 이웃이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본교가 2018.3.1.부터 마을연계 혁신학교가 되어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할 때도 아이들에게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을 디자인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주고자 찾아간 곳이 벌터문화마실이다. 다음은 학교와 벌터마실이 함께 아이들에게 마을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고 배우도록 이끌어 아이들이 마을의 작은 주인으로 성장하는 사례이다.

학교와 마을의 연결로 성장하는 아이들

본교 환경동아리 아이들은 벌터벼룩시장에서 재활용품과 예술이 만나는 창의적인 작품 제작활동인 우유곽과 폐현수막으로 지갑과 가방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고 업사이클링을 홍보하였다. 수익금은 아이들이 선택한 곳에 기부하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마을 속에서 삶으로 연결 짓는 체험을 하였다. 또한 밴드동아리, 우쿨렐레, 방송댄스 등 마을을 무대로 공연을 펼치고 마을 주민의 아낌없는 격려와 환호를 받음으로 아이들은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경험을 하였다. 아이들은 함께 웃고 즐기는 마을축제에서 ‘우리’가 되는 체험을 하면서 이웃의 정과 공동체 문화를 배웠다.

벌터마실과 함께 마을 담장 벽화 꾸미기

벌터 마을에는 소달구지가 다녔던 오래된 옛길이 있다. 그 길이 지금도 아이들의 등굣길과 찾길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벌터옛길 거리정원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아이들과 작가들이 함께 벽화와 식물을 심어 마을은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에 참여했다. 전교생이 도자기에 마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작가들의 도움으로 구워서 학교 담장에 커다란 아이들의 밝은 동심 하트 작품이 탄생했다. 깨끗해지고 예뻐진 마을과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학교와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아름다운 추억의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었다.

5학년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마을 탐방활동(사회, 미술, 국어)

벌터마을 재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벌터문화마을 디렉터 한문희 선생님을 초청하여 마을 역사와 마을의 변화 모습을 듣고 마을 탐방 활동을 하였다.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 찾기, 마을 지도에 벌터옛길 표시해보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변화 찾기, 마을에서 사물 사진 찍고 인터뷰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의 변화 과정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무심코 지났던 마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마을의 생태, 역사, 문화 등 장점도 알게 되고 문제점도 얘기해 보면서 만들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구상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의 정서와 풍부한 경험은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준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와 삶의 역량 신장은 마을과 학교는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와 마을 속에서 안전한 돌봄과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마을을 사랑하고 추억을 만들며 이웃과의 관계를 배우고 몸에 익히면서 정이 살아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미래의 사람이 반가운 마을과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연극과 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연극연출가 조성현
(별터문화마을 마을학교 연극수업 진행)

몇 해 전, 대학로가 아닌 세류동 곳곳을 무대 삼아 파편적인 이야기를 퍼포먼스로 만들었는데 ‘아버지와 상실’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사라지다’라는 제목이었고 골목, 옥상, 냇가 등 동네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모집된 관객만이 아니라 무심히 지나치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형식의 공연을 만들었다. 모집된 관객은 안내자를 따라 동네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보게 되고, 주민들은 이야기와 함께 낯선 동네를 경험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때의 낯선 경험이 익숙함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이후에 ‘서둔동’에서 했던 공연도 같은 형식의 공연이었는데, 개발과 보전,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동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했었다. 마을의 지형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파편화된 구조 속에 마을과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였고 마을을 통해 느껴지는 인상과 감각들을 이미지로 표현하려 했다. 이러한 작업은 서사적 공감보다 감상과 이해를 우선했는데 주민들에게 낯선 경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싶었다.

정화(淨化)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적 바람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억눌린 감정의 해소를 통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어 했다. 연극의 여러 기능 중에 극 속의 ‘인물’이 지닌 서사와 현실 속 자신의 서사를 동일시하거나 객관화하여 감정적 해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직접 경험, ‘연기(演技)’를 통해 ‘카타르시스, 정화(淨化)’를 경험하고 싶어 했다. 직장과 가정 내의 상황들로 혹은 개인의 내면적인 이유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가 응고된 채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 속의 역할을 통해 말과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재미와 희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일상의 리듬이 바뀌면 마을의 리듬이 바뀌지 않을까.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내면 정화(淨化)를 위해 예술이 필요했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연극과 마을

연극이 우리의 삶에 돌을 놓는다. 나와 너 사이에 돌을 놓는다. 돌은 나와 너 사이의 거리이고, 마주한 공간의 크기를 가늠케 한다. 콩알만 한 것부터 목성만큼의 것까지. 돌은 침묵 혹은 대화를 만든다. 가만히 서거나 한두 걸음 옮기게 할 수도 있다. 그저 놓인 돌을 보고 나와 너는 돌아설 수도, 놀이를 만들 수도 있다. 내·외적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만나야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돌’을 놓는 건 ‘연극’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마을에서 연극으로 ‘나와 너 사이에 돌을 놓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전했다. 앞으로도 누군가 ‘돌’을 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계속되는 이야기처럼 멈추지 않길 바란다.



어쩌다 도시농부

도시농부 정선아
(벌터문화마을 마을학교 꼬마텃밭 수업진행)

춡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해가 쨍쨍 비추거나 언제든 나를 편하게 움직여 주는 자동차가 나는 참 고맙다. 그런 내 공간에 간혹 딸아이를 태우면 예외 없이 드러누워 코를 잡는다. “으음 냄새... 엄마 차는 요상한 꾸리꾸리 냄새가 나요... 정말 타기 싫다. 방향제 없어요?” 그런데 방향제를 놓고 향수를 뿌리면 더 헛갈리는 향으로 차 안 공기가 복잡해진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어느 하나는 포기다. 나는 향기롭고 우아한 드라이버는 포기하기로 했다. 언제부터인지 내 차에는 예쁜 인형이나 소품대신 흙과, 돌, 식물, 퇴비, 각종 농기구 등이 뒷좌석과 트렁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농사 짓는 삶을 어디 상상이나 했었던가? 나는 전업농부도 아니고 대대로 농사 짓던 농부의 딸도 아니다. 그저 작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다. 그런데 참 요란한 도시농부다. 힘든 수고로움 뒤에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건강과 사람과 이야기가 따라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다가 점점 늘고 있는 도시농부이다. 여기서 얻는 행복감을 나만 느끼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벌터문화마실에서 연락을 받고 흔쾌히 찾아가고자 한 이유도 그러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도심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과 원예, 자연물목공을 겸한 내용으로 아이와 가정과 마을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

마을에는 딱히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없었다. 유흥지를 찾기도 어려웠고 구불구불한 구도로에서 마땅한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 주택의 외벽 옆 공터에 플랜트 상자를 놓고 작물을 심기로 했다. 아이들은 텃밭을 가꾸고 부모님들과 마을 어른들은 옆에서 아이들을 지켜보아주고 격려해주었다. 상자만 덩그러니 있던 곳에서 꼬물꼬물 손길에 더해지니 새싹이 움트고 정성을 더하니 싱싱하고 건강한 채소들이 쑥쑥 자라

주었다. 아이들은 혈기왕성한 호기심으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조그만 틈만 보여도 그사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긴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알아서 척척이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기대이상이다. 지나는 길가에 텃밭이 있어서 행여나 손을 탈까? 또 내가 키우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힘도 들고 꽤도 나지만 아이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하다. 엄마와 함께 물을 주고 가꾼 아이들을 만나면 자랑스러움이 목소리에 흘러넘친다. 내가 가꾼 채소와 곁들여 삼겹살이라도 먹으면 아이들은 신이 난다. 엄마 아빠도 즐겁다. 나도 같이 행복하다.

벌터마을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좁은 공간을 비집고 신기하게도 작물이든 관엽식물이든, 꽃이든 식물들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 비좁은 계단에도 대문이 있는 담벼락 위에도 내 집 앞에도. 화려하고 예쁜 화기가 아니다. 꽃집에서 사온 그대로 검정 플라스틱 화기에 빨간 고무다라에 또는 스티로폼에... 기능적으로 아무문제 없음을 경험으로 알고 터득한대로 개성 있게 가꾸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고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벌터문화마실이 있다. 참 멋진 분들이다. 흠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 마을에서 잘 놀 수 있도록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작게나마 벌터마을에서 착한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줘 감사한 마음이다. 마을이 행복하면 좋겠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힘들지 않아요? 취미생활이나 하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가끔은 되묻는 질문이지만 결론은 언제나 명확하고 간단하다. “건강해져요” 나는 어쩌다 도시농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흙을 누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조금은 좋은 사람이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음악이 만들어준 놀라운 시간들

첼리스트 주윤아
(벌터문화마을 마을학교 음악수업 진행)

나는 첼로 연주자다.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하며 살아온 시간동안 나의 생각은 줄곧 ‘나와 음악’이라는 틀 안에 맞춰져 있었다. 음악공부에 몰두하면 할수록 점점 클래식 음악을 음악전체로 보는 좁은 시야 안에 갇혀 음악은 소수만 즐길 수 있는 특수예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다. 음악교육 또한 전문음악인이 되려는 사람들이나 이미 성숙한 어른들에게만 가까스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나는 음악을 ‘나’라는 틀 범위 안에서만 해석하고, 좁은 관계 안에서만 누려왔다. 음악이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즈음 나에게는 뭔지 모를 답답함이 생겼고, 음악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깊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어느 학교의 음악수업은 ‘나와 음악’에만 갇혀있던 생각과 시야를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그 이후의 나의 음악활동은 더 다양해졌다. 정식 공연장이 아닌 도서관에서의 연주나 길거리 버스킹 같은 경험과 오케스트라에서 내 옆에 함께 연주하는 모르는 연주자를 통해서도 나는 새롭게 변하는 나의 생각과 시선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세상이 잠시 맞닿게 되는 순간은 참으로 놀랍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렵듯이 공감할 수 있는 순간 말이다. 음악은 나에게 늘 그런 놀라운 시간을 선물한다. 벌터마을에서 마을의 아이들과 진행한 ‘음악교실’ 역시 나에게 그런 시간이었다. 비록 나를 통해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솔직하게 반응한 순간들은 우리의 커다란 세계였다. 벌터마을의 음악교실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배워나간 소중한 경험이었다.

음악은 놀랍다. 그러나 음악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우리는 더욱 놀랍고 소중하다. 그것이 벌터의 음악교실 아이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이 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만나게 될 자신과 누군가를 더욱 기대하고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 마을탐방

우리는 근대화라는 압축성장을 이루면서 전통적인 삶의 공간과 방식들이 빠르게 변화해 왔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 문화를 통해 상호 자급자족하며 삶에 필요한 많은 것과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바뀐 삶의 형태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개인은 소외되고 고립되었으며 사회는 불안을 흡수해 주지 못한다. 문제에 대한 각성이 일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마을’에서 해오고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의미 있는 성과와 지점들이 발견된다. 벌터문화마을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과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들을 주민들과 함께 방문해 보았다.

성미산과 논골마을

마포구 성미산 자락의 성미산마을은 1990년대 초반 공동육아를 시작하며 형성되었다. 1994년 한국 최초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작한다. 2000년에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면서 지역사회구성원들과도 소통하게 된다. 2003년 성미산 개발에 반대하며 벌인 싸움은 ‘성미산마을’을 하나의 결속력 강한 공동체로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마을 내 다양한 활동들과 협동조합들이 운영되는 성미산마을은 마을공동체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주었으며,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좋은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주고 있다.

성남의 논골마을 공동체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논골마을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며 주민 2천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안하였고, 2014년 개관이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두목회(두번째 목요일 주민회의), 마을학교, 논골축제, 하룻밤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논골마을카페, 갤러리‘툼’, 아지트56.1 등은 논골마을도서관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의 일상적 소통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 방문일시 : 2017년 2월 25일 9시 30분 ~ 18시
- 방문마을 : 성미산마을과 성남시 논골마을
- 참가자 : 벌터마을주민협의체, 벌터마을회, 주민 등 40명



안산 감골주민회

안산시 사동의 감골주민회는 초등학교 학부모 봉사모임에서 공동육아를 위해 모인 주민 모임에서 시작하였다. 활동을 지속하며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모임은 현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숲’과 ‘나무공방’, ‘청소년열정공간 99°C’를 운영하고 있다.

- 방문일시 :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9시 ~ 오후 3시
- 방문장소 :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95-7
- 참가자 : 벌터온, 주민 등 15명



문탁네트워크

문탁은 2009년 동네친구 9명이 모여 ‘이반일리치’를 읽기 시작했고 이듬해 인문학공간 ‘문탁’을 오픈하였다. 삶을 바꾸는 ‘인문학 공간’이 핵심이며, 친구와 함께 공부를 통해 삶의 비전을 찾아가는 작고 단단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인문학공간 ‘문탁’외에 마을작업장 ‘월든’과 세미나룸, 강의실, 작업실, 주방, 카페로 이루어진 마을공유지 ‘874-6 파지사유’를 운영하고 있다.

- 방문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9시 ~ 3시
- 방문장소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문탁네트워크
- 참가자 : 벌터문화마을 주민협의모임, 주민 등 20명



벌터마을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풀어 놓을 벌터문화마실이 있다.

박은미
괜찮은 어른으로 자라고 싶은 어른들의 학교
‘수원삼삼오오학교’ 활동가

이 골목에 부쩍
싸움이 는 건
평상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다
평상 위에 지지배배 배를 깔고 누워
숙제를 하던 아이들과
부은 다리를 쉬어가곤 하던 보خم 아줌마,
국수내기 민화투를 치던 할머니들이 사라져버린 뒤부터다
평상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동백 화분이 꽃을 피웠다
평상 몰아내고 주차금지 양큰한 꽃을 피웠다

손택수 시 <양큰한 꽃>(2006)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을 품어주는 평상이 사라지고, 골
목에 부쩍 싸움이 는 건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동네에
서 골목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없어졌기에, 그 관계를 풀
어 놓을 곳이 사라지니 일어난 일이다. 손택수 시 <양큰한
꽃>에서 사라진 평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는 어떻게 존재하
고 있는가? 우리는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공유공간으
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낼 수 있는 곳을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서둔동에 위치한 벌터문화마실은 2016년부터 2019년까
지 4년 동안 ‘프로젝트 머리에 꽃’이 주관이 되어 벌터문화
마을사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 12월로 문화마을 사업이
종료된 이후 벌터문화마실을 애정하는 주민들의 자립으로
벌터문화마실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1월9
일 첫 운영회의 전에 문화마실 동아리 공동모임의 그녀들
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다.

Q.어떻게 벌터문화마실을 운영할 생각을 하셨나요?

A.주민1 : 처음부터 운영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
어요. 처음에 여기가 사업이 끝나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회
원들은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공간이 꾸러지기 전에 수
업 끝나며 헤어지게 되는 형태였는데, (벌터문화마실)공간
이 생기면서 교류와 소통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이 같이 밥도 해먹고, 동아리모임에서 만나서 보니, 아이들
과 연결되어 있고, 이웃주민도 있고, 또다른 동아리에서 또
만나고 하는, 조금씩 다양한 관계망이 연결되어서, 서로 친
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생겼어요. 애정이 생겼는데 사업
은 끝난다고 하니, 공간 유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사업이 끝나게 되어도 공
간은 유지가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못 나오게 되는
거냐?’ 등 그때 여러사람들이 (공간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구나라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서로 모여서 ‘유
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자연스럽게 수다 떨
듯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2~3달 고민을 했지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문희선생님이 되게 쉽게 “유지
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얼마씩 내서 운영하면 되지.”라고
던지는 말이 힌트가 되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볼까요?’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다들 애정도가 깊어 다
들 하시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단순한 프로젝트사업을 넘어 벌터문화마실 운영 여부가
‘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나의 필요’로 연결되어 주민의 주
체가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친밀
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생활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주민1 :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보자, 운영을 해보는데,
우리는 처음이고, 가정이 있는 주부이고 하니, 액수 든, 여
기 있는 시간이 너무 과하지 않게 열정을 쏟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해보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거기서 말한 사람
들이 조직이 되고, 그렇게 모임을 만드니, 그럼 공간도 있
고 조직도 만들어 졌으니, 우리도 비영리단체로 해서 공모
사업 같은 것도 받아 보자라고 이야기되었어요. 우리에게
직접 닥친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각각 고
민이 많고, 여기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공간운영에 대
한)경험치가 부족하고, 전에는 와서 참여만 하고 가면 되
는데, 실제로서 주인이 되어야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하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진짜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처음에 이야기하기는 6개월만
우리가 버텨 보자 하다가, 지금은 1년까지 운영해 보자 하
는 거 예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올 한 해
여기서 잘 지내보자 하는 거죠. 거대한 꿈은 없어요.

Q.마음을 같이 하자고(같이 운영해 보자고) 한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A.주민1 : 처음 계획은 20명이었지만,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 주시는 분이 15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소
수정예로 마음을 맞춰서 잘해볼 수 있을 꺼라 생각이 들어요.

회원제? 적당한 명칭이 아직 없어서 회원이라고 하는데,
정회원, 기부회원, 일반회원으로 등급이 있어요. 등급을 정
한 이유는 정회원은 3개월에 6만원을 미리 내서 안정적으
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기부회원은 언
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월 만원을 내는 것, 일반회원
은 여기 공간과 소통과 교류를 하지 않고 공간만 사용하겠
다고 하면, 시간당 공간 사용비를 받는 형태로 구분하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합의하는데, 논의와 논의를 수십 시간 들
여서 만든 정관이 나왔고, 한두 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만들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무리하게 애쓰지 않아도 나름의 체계가 있어서 저
절로 돌아가고, 평가되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참여하
는 이의 선의가 책임과 권한, 각자의 기능과 역할로 분명해
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함께 하는
이들 모두가 마치 제 것 인양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논의의 장은 처음은 친밀한 이웃들과 ‘끼리끼리’
시작 되지만 이를 넘어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는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의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



Q.벌터문화마실은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A.주민2 : 편안한 것 같아요. 코바늘을 작년에 배우다가 손
가락이 아파서 못하고, 지금은 재봉틀을 하는데, 옷만 만들
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가끔 화나는 일
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면 공감도 해주고, 차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해서. 공간이 유
지가 잘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롭게 교류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A.주민3 :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 하거든
요. 연고지가 없이 서울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마실이라는
곳을 만나면서 이 동네에 대해서 많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
어요. 여기 마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웠고, 또 동네
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없어요. 소
통의 창고 플랫폼 역할을 마실이 해줬어요. 아이들이 마실
에 와서 많이 배웠고, 행사를 하면 아이들이 도와주면서 여
기 안에서 잘 크게 되었어요. 학교이면서 배움의 장,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이 됐어요.

A.주민4 : 똑 같은 것 같아요. 마실을 처음 알게 되고나서
삶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생활 패턴이나 행동반경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인생의 4막의 시작. 1
막은 학창시절, (2막)취업을 하고, (3막) 결혼하고, 여기서
나의 새로운 삶... 이 사람들도 여기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사람들... ‘새로운 시작이다.’

A.주민5 : 다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회원으로 왔었는데, 집에만 있던가, 다른 문화센터를 가면 수업이후에 끝나는데, 여기는 연장선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간의 교류라든가 얘기라던가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를 배우고 끝 나는데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수업도 있고,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면서, 내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메리트도 있고 애정이 갈수 밖에 없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립의 힘으로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은 여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만큼 그 공간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나의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공간, 나와 아이의 ‘배움의 장’ ‘소통의 공간’,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 내가 무언가를 창출 할 수 있는 공간 등 벌터문화마실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했다. 코바늘동아리,

재봉틀동아리, 포크댄스동아리, 기타동아리, 우쿨렐레동아리, 영어동아리, 일본어동아리, 독서동아리, 음악놀이수업, 그림책 읽기 시간 등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연결되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마을의 일상 풍경으로 자리 잡으며, 벌터문화마실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서둔동에 ‘벌터문화마실’이라는 평상 하나가 놓아졌고, 이웃끼리 사연과 관계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웃이 넓어지며, 평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함께, 그리고 즐겁게! 1년을 잘 보내시길 바라본다.



벌터문화마을 자료집

비하인드 벌터

이진실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수원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치 “응답하라 1994”의 세트장인 것 마냥 시대가 멈춘 것 같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다. 서둔동 ‘벌터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이름의 유래에는 벌판에 터를 잡고 마을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한다. 수원공군부대가 인근에 위치해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고, 낮시간 남아있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저렴한 집값을 찾아 들어온 젊은층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부 구성되어 있어 상호 교류가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다.

2016년 여름이었던 것 같다. 일요일 아침 늦잠을 자고 있는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 속 들뜬 목소리의 아주머니는 “서둔동에 있는 00부동산인데 여기 뭇을 한다던데, 그럼 집값 좀 오르려나요?”라고 얘기하셨다. 잠이 확 깼다.

그 시기에 벌터마을을 두고 그저 문화를 관광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제안(?)들이 있었다. 그 중 기억나는 것은 벌터마을을 삼청동 거리처럼 조성하자는 의견과 마을 내에 유명한 떡볶이 집들을 유치해 떡볶이마을로 만들자는 이야기였다. 물론 상권이 살아나면 마을이 북적 거리긴하겠지만, 그곳에 삶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이 느낄 그 북적거림이 과연 마을의 활기로 느껴질 것인지에 대해 우려되었다.

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을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민들이 문화로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벌터문화마을은 문화기획자 한문희 선생님을 총감독으로 모시고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벌터마을에는 공동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간섭외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그 당시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골목의 초입에 위치한 상점(치킨집과 구제옷가게)을 임대, 정비한 후 ‘문화마실’이라는 이름을 지어 오픈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 모임 등을 진행했다. 시간이 흐르고 당신들의 가까운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하면서 주민들도 조금씩 호기심을 나타냈다.

지금은 경로당이 새로 지어져 어르신들이 이사를 하고, 마을회관이 위치한 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문화마실’이 옮겨가 점차 쓸모 있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민들과 자연스레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은 벌터마을.

문화는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문화를 만드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벌터마을을 통해 여실히 느꼈다. 한문희 감독님이 계셔서 4년동안 벌터마을은 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공적자금과 운영지원이 사라진 벌터마을 내에 문화적 활동들이 어떤 모습을 이루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소박하지만 따뜻한 문화가 있는 벌터마을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이제 주민들 스스로 “벌터문화마을”을 완성시킬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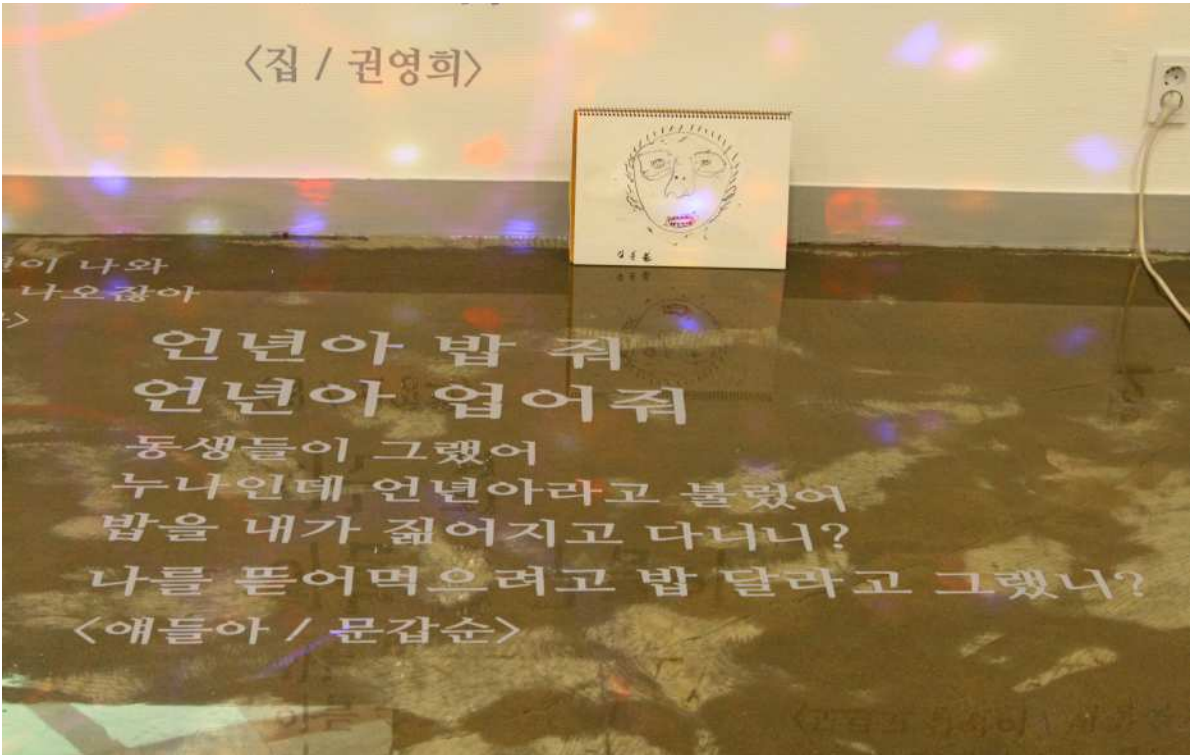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근무하며 벌터문화마을 사업 초기 2년 동안 사업을 담당했었다.

동네야 놀자展

‘동네야 놀자展’은 수원민족미술인협회가 수민미협 회원들과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초대해 매년 개최하는 전시다. 벌터문화마을은 2017년과 2018년 초대되어, 마을사진집 「인생이 다 시지, 뭐」, 마을사진집 「벌터스럽다」의 활동을 전시했다.

- 2017년 동네야 놀자展
 - 기간 : 2017년 11월 7일 ~ 11월 12일
 - 장소 : 수원미술전시관 제2전시실
 - 내용 : 마을사진집 「인생이 다 시지, 뭐」 내용과 손바느질 수강생 작품
 - 주최 : 수원민예총 / 주관 : (사)수원민예총, 수원민족미술인협회

- 2018년 동네야 놀자展
 - 기간 : 2018년 11월 6일 ~ 11월 11일
 - 장소 : 수원미술전시관 제2전시실
 - 내용 : 마을사진집 「벌터스럽다」
 - 주최 : 수원민예총 / 주관 : (사)수원민예총, 수원민족미술인협회



벌터문화마을 자료집



동네야 놀자展



2017.01.11
경기신문

할머니가 그림 그리고
매달 음악회도 열리고
공동체문화로 ‘웃음꽃’



2017.02.06
경기신문

별터마을서 한 판 붙어봅시다



2017.05.16
인천일보

정겨운 '별터마을'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2018.02.05
경기신문

어르신들은 말하셨지
'인생이 다 시지, 뭐'...
첫 시집 출간



2018.02.07
경기신문

수원 별터마을 올해도
'웃-꽃놀이' 펼친다



2018.04.24
인천일보

고단했던 삶,
굵고 짧은 시가 되다



2018.05.15
경기신문

놀이터 만난 벼룩시장,
축제의 장 변신
19일 수원 별터마을서
함께 즐겨봐요



2018.09.14
경기신문

가을바람 타고 온 공연·체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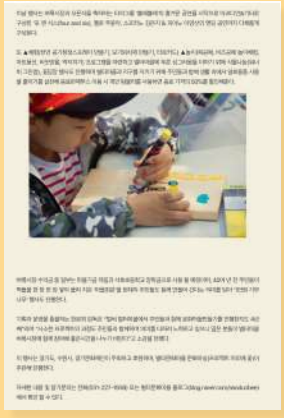
2018.12.12
인천일보

시간 향기 배어있는 별터마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다



2019.05.08
경기신문

별터마을 '문화마실'
열차개준비



2016.06.01 ~ 2017.03.31

발행일	기사제목	매체명	페이지	카테고리	크기	기자
2016 08-29	벌터마을 커뮤니티 하우스 문화마실 여는 날	경인일보	016면	문화	24.4 x 5	민정주
2016 08-31	수원 벌터마을로 문화마실 오세요	중부일보	015면	문화	5.6 x 26	김동성,편집 심미정
2016 09-02	수원 벌터마을 주민사랑방 ‘문화마실’ 내일 문 엽니다	경기신문	012면	문화	6.4 x 14	민경화
2017 01-11	할머니가 그림 그리고 매달 음악회도 열고 공동체문화로 ‘웃음 꽃’	경기신문	020면	기획/특집	38.5 x 50.8	민경화
2017 02-06	벌터마을서 한 판 붙어봅시다	경기신문	012면	문화	18.9 x 19.7	민경화
2017 02-06	수원 벌터 문화마을에서 웃 꽃놀이 즐기세요	중부일보	014면	문화	13.7 x 11.3	황호영,편집 변민영
2017 02-06	정월대보름 맞이 ‘웃·꽃놀이’ 행사	경기일보	015면	문화	14.1 x 12.1	류설아,문의
2017 02-06	정월대보름 벌터마을에서 ‘판’이 벌어진다네	인천일보	015면	문화	10.2 x 33.0	남창섭
2017 02-06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한마당	경인일보	017면	문화	12.2 x 18.7	공지영
2017 02-07	굵은 웃가락 던져 1.4m 줄 넘기기 65세 넘는 여성들만 꽃놀이 한 판	기호일보	013면	문화	12.5 x 18.9	박노훈
2016 07-07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벌터 문화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경기타임스	http://www.g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64			
2016 07-07	서둔동, 벌터 문화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열려	경인종합일보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73			
2016 08-29	수원 서둔동 주민문화공간 오픈… 내달 3일 개소식 퍼포먼스 공연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828010008580			
2016 09-01	수원 벌터마을 주민사랑방 ‘문화마실’ 내일 문 엽니다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842			
2016 11-08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인형극 어른신이 살아온 이야기 나눠요	경기타임스	http://www.g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73			
2016 11-08	서둔동 벌터경로당, 인생나눔 인형극 개최	경인종합일보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99			
2017 02-05	벌터 문화마을, 오는 11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웃·꽃놀이’ 행사 개최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7496			
2017 02-05	벌터마을서 한 판 붙어봅시다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974			
2017 02-06	수원 벌터 문화마을에서 ‘웃·꽃놀이’ 즐기세요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41579			
2017 02-06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한마당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205010001318			

2017.04.01 ~ 2018.03.31

2017 05-16	‘마을잡지 벌터’ 1호 발간	경기신문	012면	문화	6.3 x 17.6cm	민경화
2017 05-16	정겨운 ‘벌터마을’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인천일보	014면	문화	21.7 x 17.1cm	남창섭
2017 05-18	낙후 지역 이미지 벗고 문화를 입다	경기일보	018면	문화	11.9 x 15.9cm	손의연
2017 09-28	30일 열리는 수원 ‘벌터 마을축제’ 놀러오세요	경기신문	012면	문화	12.5 x 13.3cm	민경화
2018 02-05	어르신들은 말하셨지 ‘인생이 다 시지, 뭐’… 첫 시집 출간	경기신문	012면	문화	25.2 x 23.7cm	민경화

2018 02-06	울고 웃는 세상사 인생이 다 시지 뭐	인천일보	016면	문화	18.2 x 28.9cm	최현호
2018 02-07	수원 벌터마을 어르신들의 인생 스토리 88편 엮은 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출간	중부일보	017면	문화	12.4 x 13.2cm	김동성
2018 02-09	수원 벌터마을 어르신 삶 애환 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발간	경인일보	008면	문화	6.1 x 12.1cm	공지영
2018 02-26	경기문화재단, 내달 3일 벌터마을서 대보름 행사 웃 꽃놀이 진행	중부일보	017면	문화	18.4 x 9.8cm	김동성
2018 02-27	대보름 웃 던지고 꽃놀음하며 행복 기원	기호일보	013면	문화	24.4 x 12.0cm	박노훈
2018 02-27	‘정월대보름’ 한바탕 즐겨보세	경기일보	018면	문화	35.4 x 19.2cm	송시연 손의연, 문의
2018 02-28	수원 벌터마을 올해도 ‘웃·꽃놀이’ 펼친다	경기신문	012면	문화	12.7 x 20.7cm	민경화
2018 03-29	“그 지역만의 문화·예술 찾아내 전달하죠”	경기일보	017면	사람들	18.2 x 21.7cm	송시연
2017 05-15	‘마을잡지 벌터’ 1호 발간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00			
2017 05-16	정겨운 '벌터마을'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2997			
2017 05-17	수원시 서둔동 벌터마을, 마을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마을 잡지 '벌터' 발간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3069			
2017 09-27	30일 열리는 수원 ‘벌터 마을축제’ 놀러오세요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004			
2017 09-28	벌터에서 맛있게 놀자 '벌터 마을축제' 개최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1777			
2018 02-04	어르신들은 말하셨지 ‘인생이 다 시지, 뭐’… 첫 시집 출간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883			
2018 02-05	수원 벌터마을 어르신들, 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출간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2640			
2018 02-06	수원 벌터마을 어르신들의 인생 스토리 '인생이 다 시지, 뭐' 출간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27357			
2018 02-0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18년 현강행정 첫행보, 권역별 순찰	경인투데이뉴스	http://www.ktin.net/h/contentxxx.html?idx=360249&hmidx=23			
2018 02-06	울고 웃는 세상사 '인생이 다 시지 뭐'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7773			
2018 02-09	수원 벌터마을 어르신 삶 애환… 시집 '인생이 다 시지, 뭐' 출간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208010002825			
2018 02-25	경기문화재단, 정월대보름 맞이 '웃·꽃놀이' 개최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1267			
2018 02-26	수원 서둔동 벌터마을서 ‘웃·꽃놀이’ 개최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515			
2018 02-26	3월2일 정월대보름 맞아 수원서 정월대보름을 즐길 수 있는 행사 열려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999			
2018 02-26	수원 '벌터마을', 다음달 3일 정월대보름 '웃·꽃놀이' 행사 개최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7604			
2018 02-27	‘대보름’ 웃 던지고 꽃놀음하며 행복 기원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9061			
2018 02-27	벌터마을, 3일 정월대보름 맞이 ‘웃·꽃놀이’ 행사 개최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0365			
2018 02-27	수원 벌터마을 올해도 ‘웃·꽃놀이’ 펼친다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92			
2018 03-28	한문연 문화기획자 “그 지역만의 문화·예술 찾아내 전달하죠”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9249			

2018.04.01 ~ 2018.12.31

발행일	기사제목	매체명	페이지	카테고리	크기	기자
2018 04-24	고단했던 삶, 굵고 짧은 詩가 되다	인천일보	016면	문화	29.7 x 46.3cm	남창섭
2018-05-14	수원 별터마을 벼룩시장으로 19일 놀러 오세요	중부일보	017면	문화	18.4 x 14.7cm	김동성
2018 05-14	수원 서둔동 별터마을 19일 벼룩시장 놀이·공연·체험 프로그램 함께 열려	경인일보	014면	문화	7.5 x 21.5cm	강효선
2018 05-15	놀이터 만난 벼룩시장, 축제의 장 변신 19일 수원 별터마을서 함께 즐겨봐요	경기신문	012면	문화	18.9 x 10.3cm	민경화
2018 09-14	가을바람 타고 온 공연·체험 선물	경기신문	012면	문화	12.5 x 18.7cm	민경화
2018 09-14	꿈꾸는 별터마을로 놀러 오세요	인천일보	015면	문화	21.6 x 15.3cm	박혜림
2018 10-05	눈물로 지낸 세월에도 행복이 피더라	경인일보	001면	종합	24.6 x 24.6cm	공지영
2018 11-05	마을 골목 소통 조명 예술가 시민 기획전	경인일보	016면	문화	7.3 x 23.3cm	강효선
2018 11-06	마을마다 골목마다 예술가와 소통	경기신문	012면	문화	12.6 x 19.1cm	정민수
2018 12-12	시간 향기 배어있는 별터마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다	경기신문	012면	문화	12.7 x 30.4cm	정민수
2018 12-13	경기문화재단, 마을사진집 발간	중부일보	017면	문화	12.4 x 6.9cm	김동성,편집=박시원
2018 12-20	별터마을 여섯 가지 풍경 찰칵찰칵	인천일보	016면	문화	14.5 x 17.2cm	남창섭
2018 04-24	[보통사람의 글쓰기] 1 별터경로당 어르신들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8124			
2018 05-13	수원 별터마을 벼룩시장으로 19일 놀러 오세요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0445			
2018 05-14	수원 서둔동 별터마을 19일 벼룩시장… 놀이·공연·체험 프로그램 함께 열려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513010004403			
2018 05-14	놀이터 만난 벼룩시장, 축제의 장 변신 19일 수원 별터마을서 함께 즐겨봐요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069			
2018 05-17	별터마을 19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벼룩시장&놀이터축제'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11097			
2018 09-12	‘별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개최... 공연 · 놀이 · 체험, 가지가지 다양하게 즐기자!	수원화성신문	http://www.esuwon.net/32734			
2018 09-13	가을바람 타고 온 공연·체험 선물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827			
2018 09-14	꿈꾸는 별터마을로 놀러오세요'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4560			
2018 09-16	별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마을 축제 선도해	e수원뉴스	http://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1809161008159416			
2018 09-17	별터마을, 공연·놀이·체험 즐기는 '가지가지 축제' 개최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353			
2018 09-18	별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마을 축제 선도해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6575			
2018 09-20	경기문화재단, '별터마을 가지가지 축제' 개최	NEWS21 통신사	http://www.krnews21.co.kr/news/view.php?idx=242824			
2018 10-05	[별터마을 詩 쓰는 할머니들의 행복]눈물로 지낸 세월에도 행복이 피더라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003010000982			
2018 11-05	마을·골목 소통 조명… 예술가·시민 기획전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103010000671			

2018 11-05	인간과 자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 조명	e수원뉴스	http://news.suwon.go.kr/?p=22&viewMode=view&reqIdx=201811051106598242
2018 11-05	마을마다 골목마다 예술가와 소통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101
2018 11-07	다양한 미술세계로의 초대..자연과 인간의 공존	e수원뉴스	http://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1811071501476412
2018 11-07	전문작가와 학생 미술작품 한곳에서 감상	e수원뉴스	http://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1811072348432241
2018 12-11	경기문화재단, 마을사진집 ‘별터스럽다’ 발간	경기경제신문	http://www.ggeco.co.kr/news/48985
2018 12-11	별터마을, 마을사진집 ‘별터스럽다’ 발간	서울뉴스통신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54
2018 12-11	시간의 냄새가 가득 배어있는 별터마을 사진집 ‘별터스럽다’ 발간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11010006515
2018 12-11	경기문화재단, 시간의 냄새가 가득 배어있는 별터마을, 마을사진집 ‘별터스럽다’ 발간	수원화성신문	http://www.esuwon.net/34882
2018 12-11	경기문화재단, 별터마을 마을사진집 발간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262
2018 12-11	시간 향기 배어있는 별터마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다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692
2018 12-20	별터마을 여섯 가지 풍경 '찰칵찰칵'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026#08hF
2018 12-21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별터마을	e수원뉴스	http://news.suwon.go.kr/?p=40&viewMode=view&reqIdx=201812212215354076

2019

2019 05-06	경기문화재단, 별터마을서 '벼룩시장'개최	중부일보	이시은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267
2019 05-06	경기문화재단, 별터문화마을 '벼룩시장 feat. 그림에도 오픈식' 개최	뉴스웨이	안성렬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50616454188144
2019 05-06	별터문화마을 '벼룩시장 feat. 그림에도 오픈식' 개최	아시아투데이	김주홍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506010002682
2019 05-06	수원 별터문화마을 벼룩시장&문화마실 오픈	경기방송	이창문	http://www.kfm.co.kr/news/view/9338680
2019 05-08	별터마을 '문화마실' 개관식 알차게 준비	경기신문	정민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589
2019 05-08	나누려 왔다 누리는 곳… 5월11일 수원 별터마을 벼룩시장 오픈	인천일보	박혜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125



에필로그

벌터는 예전에 마을 전체가 논이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벌말이라 불리던 지금의 평동에 직물공장이 생기고 수원역 주변으로 공장들이 생기면서 노동자 숙소와 민가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음을 옛 지도를 보며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농사를 짓던 땅에서 노동자들의 일과 삶터로, 주변 산업시설들이 모두 없어진 지금은 평범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벌터는 변해왔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있어 근대 농업의 산실로 자리 잡았던 서둔동의 한켠에서 벌터도 그 영광을 잠시 누리기도 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늘 변한다. 벌터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을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는 그 터전위에서 서로의 삶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커뮤니티 공간은 꼭 필요하며 중요하다. 조금 다행이라면 벌터에는 문화마실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며 무엇인가 모색해 볼 수 있는 약간의 사람들이 있다. 그동안 함께 한 관계의 시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리라. 마을의 공간을 주민들의 힘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벌터문화마을 결과 자료집

펴낸날	2020년 3월
펴낸이	프로젝트 머리에 꽃
글 · 편집	한문희
자료정리	김윤영, 임재원, 박성희
사진	박김형준, 김윤섭, 사진마음터 동네프로젝트팀(김미영, 김지혜, 박혜경, 손은영, 송유정, 양혜영, 원선식, 유희숙, 이영희, 임종순, 임현철, 장미애, 최병철, 한윤홍)
디자인	장정은
인쇄	완산정판
벌터문화마을	
예술감독	한문희
커뮤니티 기획자	고미량(2016), 이윤지(2016), 김윤영(2017~2019), 박성희(2017~2018), 임재원(2019)
경기문화재단	팀장 김종길(2016), 서정문(2017), 황순주(2018), 임은옥(2019)
담당자	담당 이진실(2016~2017), 유상호, 조은정, 이혜수(2018), 오미미, 이선규(2019)
수원시	팀장 박윤범(2016~2017), 박득순(2018), 고기남(2019)
문화정책팀	담당 주무관 성영신(2016), 박은영(2017), 추영숙(2018), 박은미(2019)
경기도	팀장 김규상
문화기반팀	담당 주무관 김경은

커뮤니티하우스 문화마실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41번길 31-26

<http://blog.naver.com/seodunbee>

©2020 본 자료집은 수원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프로젝트 머리에 꽃이 주관한

벌터문화마을 사업의 진행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수록된 사진과 글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